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劉 暢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 류 학 과

劉 暢

劉暢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학전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국문초록

본 논문은 남산골 한옥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전통문화관광에서 관광운영자가 전통을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인식은 전통의 재현과 수용 과정에서 작동 양상에 대한 민족지적인 연구이다. 근년에 문화유산관광 등 전통문화를 비롯한 문화관광은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관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통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재현과 재구성을 한다. 이렇게 재현하는 전통에 대해 진정성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문화관광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의 계승 및 재구성 모습의 한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관광연구에서 많이 논의해오는 핵심 개념으로서 본문은 구성주의적인 진정성 주장에서 출발하지만 관광대상으로 된 전통에 대해 사람마다 각자 구성하는 개인적인 다양한 진정성 인식보다는 속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 실제 어느 정도에서 공동의 진정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진정성은 "객관적"인 상징적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운영자가 전통의 재현,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 재현된 전통에 대한 수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관광운영자들이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살핀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 민속자료인 한옥 다섯 채를 포함하는 전통문화공간으로 문화재 보호를 받는 한편에 대중에게 옛날의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한옥의 문화재적 성격과 "남산골"의 역사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옥마을의 직접 운영자들은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종합적인 한국전통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우선, 운영자로서 그들이 한국의 전통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남산골에서 나타나는 전통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전통이라고 인식한다. 문화재라는 권위 있는 상징 하에 남산골의 한옥을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진짜 옛집이라고 인식하며 전통혼례 시연, 한복체험, 예절교육, 전통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남산골 한옥마을이 가진 진정한 전통성을 강조된다. 담당자들이 각자 강조하는 전통의 측면이 다르지만 한국의 전통 본질과 특징을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표현하도록 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전통을 드러낸다.

관광객으로 보면 한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 따라 진정성의 인식을 나눈다. 본국인으로서 한국인 관광객은 한국 사회에 속하고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형성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기존하는 한국전통에 관한 인식을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한옥을 비롯한 전통문화요소에 투사하고 기호와 상징을 찾는 것이다. 옛날의 진짜 집이나 옛날의 생활모습을 전시하는 복제품이나, 그리고 운영자가 기획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전통에 관한 고유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진정성이 있는 한국전통대표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은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자가 보여주는 전통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를 넘어서 관광 행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옥을 지키고 문화행사를 참여함으로써 전통의 재현에 참여하게 된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 관광객에 한국전통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본국의 비슷한 문화와 비교하거나 본국에서 받은 한국국가의 홍보, 한국매체의 소개에서 한국전통에 관한 정보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이해한다. 한국과 중국은 전통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사회에서 배웠던 고대 건축의 양상, 한국드라마에서 얻은 한옥의 이미지 등 기존한

인식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이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진정한 전통을 인정한다.

관광객들의 진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인식에다가 개인적인 경험을 붙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국가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설정하는 이미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진정한 전통, 관광객이 얻은 진정성 인식은 어느 정도에서 일치하는 것은 한국국가와 한국사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성이 있는 상징적 진정성이 작용하는 결과이다. 관광의 목적으로 전통을 재구성하거나 변화시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한국적인 고유문화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바로 진정한 한국 전통으로 여겨지게 된다.

주요어: 전통, 상징적인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재현, 수용, 남산골
한옥마을, 관광

학번: 2011-24009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1) 관광문화와 전통에 관한 논의	5
2) 전통과 진정성	8
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12
II. 남산골 한옥마을의 개관	16
1. 역사 속의 남산골	17
1) 조선시대	17
2) 일제강점기	19
3) 해방 이후	21
2. 전통문화공원으로서의 한옥마을	23
1) 한옥마을의 전통한옥들	23
2) 남산골 한옥마을의 조성	25
III. “진정한”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노력	30
1.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 이미지 창출	30
2. 옛 모습을 재현하는 한옥	32
1) 전시된 한옥의 양상	33
2) 관리운영자들의 한옥에 대한 이해와 행동	35
3) "한옥이야기"	41
3. 다양한 문화행사로 보여주는 전통	46

1) 전통 혼례 시연	48
2) 한옥 내부에서 열리는 행사	54
4.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전통의 재현	61
IV. 진정성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과 전통의 수용	65
1. 한국인 관광객	65
1) 향수 속의 한옥, 우리의 문화재	66
2) 전통의 재현에 대한 인정	75
2. 중국인 관광객	82
1) 한국의 고옥(古屋)	86
2) 한국의 전통 분위기	88
3. 관광객들의 인식과 수용의 형성	92
V. 결론	96
참고문헌	101
Abstract	10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가장 중요한 여가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관광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만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규모 인구이동을 수반하는 대중관광이다. 관광은 하나의 여가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경험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생활 기반에서 벗어나 자신이 본래 생활했던 환경, 사회,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적인 기억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떠나 전통이 존재하는 여행지에 가서 과거에 익숙했던 세계를 만나고 자신의 소속감을 되찾는다(MacCannell, 1976).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전통문화는 관광대상으로 활용되며 관광객의 취향과 동기를 끌어내는 주요한 관광매력물이 된다.

관광은 크게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으로 구분되는데 자연관광은 생태관광과 환경관광으로 나뉘고 문화관광은 역사관광과 민족관광으로 나뉜다(Graburn, 1989). 일반적으로는 한 지역에 여행을 갈 때 단일한 관광형식을 이루기보다 몇 가지 형식을 섞어서 관광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기분을 풀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한편으로 민속마을을 관람하며 제주의 역사와 민속문화도 체험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각 관광형식은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가진다. 문화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 이외에 인간의 문화적 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은 전부 문화관광에 속한다. 즉, 역사적 유산과 기념품을 관람하거나 민족적·지역적 행사, 전통예술과 미술품 등을 감상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권숙인, 2003: 5). 특히 문화관광 가운데에서는 전통문화가 주요한 관광요소가 되는데, 관광객들은 문화감상을 통해서 관광지와 지역사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에서 보여주는 “전통” 혹은 “문화”에는 현지 사회 사람들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문화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거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존재하지 않는 전통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기에서 관광대상으로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한편, 관광을 넘어서 세계화 과정에서 각 국가 각 민족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간의 광범위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세계 여러 문화들의 독특성이 감소되고 점차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 속에서, 여러 민족들은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국가적 수준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문화정책을 대폭 추진했다¹⁾. 이는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 과정과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패배한 문화, 버려야 하는 문화, 개혁해야 하는 문화라고 인식되었던 것을 변화시키고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유포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박혜준, 1999: 3), 전통문화유산의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정책을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였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총칙²⁾에서 나타나듯, 이 시기에는 단순히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족문화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발전 계획의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인식하고 문화의 발전을 국가경제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전통문화의

1) 박정희 정권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전통문화유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 후 근대화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전통문화 부문의 정책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통문화 부문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68년 7월 문화공보부를 발족시켰다. 문화재의 조사 발굴 활동, 전국민속종합조사사업, 전국명승조사사업, 전국유형문화재현황조사사업, 전국 지정/비지정 문화재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였다. 문화재개발5개년계획(1969-1974), 문예진흥5개년 계획(1974-1978) 등 장기적인 사업도 전개했다(전재호, 1998: 179-181).

2) 1962년 제정한 문화재 보호법 제1장 총칙

향유, 민속문화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대의 문화운동에서는 다양한 문화산업을 추진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 이전에는 전통문화에 대해 보존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 시기에 이르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된다(서종대, 1994: 32).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고유문화를 상품화하는 것”(문화체육부, 1993)이라는 주장에서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화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활성화와 재창조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및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서울시지방법정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받아들여 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시 소속의 유형문화재³⁾에 대해 보수와 보존에 기초한 상품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1988년 올림픽게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600년 고도로서 서울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고도 민족문화유적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지방문화재인 목조건조물에 대하여 보수, 복원, 이전의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보여줌으로써 보존과 활성화가 병존하는 식의 방침을 취했다(조교환, 2010:111). 여기에서 대중은 전통과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직접 한국의 전통문화를 관람하고 실감할 수 있게

3) 무형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 식물, 관물 등 생물학적 생성물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안,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산골 한옥마을은 바로 이러한 서울시 문화재사업 중의 일부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문화재인 전통한옥의 이전복원을 통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는 한옥을 보호하는 한편, 그것을 조선시대 서울의 건축양식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장소로 구축하려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한옥마을은 야외박물관 형식의 “모형문화(model culture)”, “무대화된 허위 민속문화(staged phony-folk culture)”, “관광무대(tourist stage)”, “전시지역(front region)”의 개념(전경수, 1994: 20)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전통을 보존하고 현지 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모형문화에서 전시된 “전통”이 어떤 의미의 전통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관광에서 전통의 재현과 수용이라는 주제에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광대상으로 만들어진 전통의 진정성 문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진정성이 전통의 재현과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관광운영자, 관광객 등 관계주체들이 관광대상물로 된 전통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즉 이 전통의 진정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진정성에 관한 인식이 전통의 재구성과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정주형 한옥마을이 아니라 전시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촌’이기 때문에, 전통을 재현하는 관리운영자와 재현된 전통을 받아들이는 관광객의 관계는 충돌이 적고 원활한 편이다. 본 연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관광공간에서 진정성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운영자가 어떻게 전통을 재현하는지, 그리고 대중들이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관광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의 계승 및 재구성 과정의 한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관광문화와 전통에 관한 논의

인류학 내다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전통은 세대를 넘어서 관습, 신념, 사고가 전해내려 온 것이다(Costello, 1992). 여기에서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전래되거나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Shils는 전통이 이처럼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달되는 것일 수 있지만 과거 시점에서의 의미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인간의 선택 결과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사회적인 산물이다(Shils, 1981). 즉, 전통은 과거와의 연속성과 동시에 인간의 재해석을 통한 변화의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임재해, 2001: 16).

전통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정원(1999)은 시베리아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야쿠트인의 으흐아흐축제가 어떤 방식으로 긴 세월 동안 존재해왔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서 축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한다. 그는 어느 집단의 문화에서도 과거는 여전히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과정에서도 과거가 현재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천 먼마루 우물고사에 대한 연구(강정원, 2002)를 통해 한국 사회 도시화나 근대화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제를 비롯한 전통은 유지하는 면을 설명한다. 문옥표(1996)는 일본의 한 농촌사회를 살펴보면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규명한다. 여기에서 전통은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재생되며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한 논의와 반대로 윌리엄스와 홉스봄을

비롯한 학자들은 “선택적 전통”,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의 개념을 제시하여 “전통”에 있어서 변화한 부분 혹은 창조된 부분을 강조한다. Williams는 전통을 근대의 문화적 힘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현재의 상황과 구조를 통해서 재구성된 것이며 과거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다(Williams, 1978). Hobsbawn(1983)의 “만들어진 전통”⁴⁾에 따르면 옛날의 것으로 보이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근대에서 발명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과거와 연관성을 만드는 뿐이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해서 정은주(1993)는 강릉단오제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한 지역 사회에서 전통의 양상과 의미가 현재에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여기에서 전통은 현대 사회에서의 적응적인 가치와 새로 부여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며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행위과정의 결과로서 선택적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김재석(2003)은 송파산대놀이와 다리밟기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문화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1970년대부터 인류학계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관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소규모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급속한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이루어졌다. 인류학자들은 특히 관광산업이 소규모 사회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해 왔다. 주로 현지인의 입장에서 관광객과 관광개발이 현지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른 문화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현지 주민의 생활방식, 유산, 예술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문화가 역사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문화관광(Craik, 1997: 121)에서 상품화나 만들어진 문화 때문에 관광지의 실제 전통문화를 파괴한다는 비판은 초기

4) Hobsbawn의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용어는 실제 발명되고 구성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통”을 가리키며, 짧지만 추정이 가능한 시기에 등장하고 급속히 확립되며 기원을 쉽게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려운 “전통”도 포함된다(Hobsbawn, 1983:20).

관광연구의 주된 관점이 되어 왔다(야마시타 신지, 1997).

반면에 관광을 위한 전통문화를 창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류정아(1995)는 민속축제가 새로운 형태의 전통성을 띠고 재창조되고 재고안되는 측면에 주목했다. 더 이상 민속에만 의지하지 않지만 그 고유한 의미는 상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구성된 현대사회의 축제는 여전히 전통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문옥표(2000)는 안동 하회마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관광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고 있는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70년대에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립을 위해 안동의 충효사상, 윤리관 등 지역의 특정한 문화를 부각시키고, 80년대 정치적 및 이념적인 저항운동에서 풍자의 내용을 담은 하회 탈춤을 활용하는 행동들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을 선택적으로 재발굴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방소연(2009)은 안성 산죽마을에서 진행되는 농촌관광에 주목하여 마을 주민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환경이나 생업인 농업 등의 영역에서 전통문화의 지속과 재구성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한다. 산죽마을 농촌관광 사업의 진행 과정에는 친환경 농업과 생태농 조성 등 재구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복조리 생산은 이전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속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이러한 점은 관광에 나타나는 전통의 지속과 변화라는 두 측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관광을 통해서 전통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지속과 변화가 공존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도 관광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의 재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통을 계승하는지 재구성하는지를 구분하는 대신에 그러한 지속과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의 전승 과정에서는 전통 자체가 자연스럽게 시대에 따라 전해지기보다는 해당 사회문화 성원들의 요구와 작용에 의해 그 지속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 논문은 특히 사람들이 전통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전통과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개념은 관광연구의 핵심 개념으로서 MacCannel이 처음 이 개념을 관광 영역에 도입한 이래로 여전히 학계의 논의와 검토 대상이다.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박물관에서 전시한 것이 진짜인지(Trilling, 1972) 혹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진정하게 되는 존재의 상태를 가리킨다(Heidegger, 1962; Wang, 2004). 트라일링에 따르면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처음 박물관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전시품이 진품인지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었다(Trilling, 1972:93). 관광연구에서 말하는 진정성은 박물관과 관련된 진정성에서 기원한다. 관광에서 관광 상품이나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수공예품, 축제, 공연 등의 것들이 현지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혹은 진행되는지의 기준으로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즉, 진정성 있는 전통적 문화의 개념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인식이 포함된다(Wang, 2004: 89).

관광 영역에서 진정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학자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객관주의(Objectiv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포스트모더니즘(Posrmodernism), 그리고 실존주의(Existentialism)의 측면에서 진정성을 논의해 왔다. 절대적인 진정성을 주장하는 객관주의 학자는 부어스틴과 맥켄넬로 대표가 된다. 부어스틴이 관광객에 대해 진정성에 접근하는 능력이 없고 진정성을 추구하는 욕구도 없다고 비판한 것⁵⁾과 반대로 맥켄넬은 관광객이

5) Boorstin은 대중관광이 “가짜 이벤트(pseudo-event)”이며 문화의 상품화 및 조작 과정에서 관광객의 관광경험을 동질화하고 표준화하며 관광객 스스로도 현지문화의 진정한

추구하는 관광의 목적이 진정성이라고 지적했다⁶⁾. 이에 비해서 구성주의자들이 보는 진정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socially-constructed)(Cohen, 1988)이고 관광객이 부여한 하나의 가치 평가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정성이 없고(Bruner, 1994), 진정성을 가지는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인식과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진정성 개념의 해체를 주장하며 관광에서 진짜와 모조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며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므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여 “초진실(super-reality)”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비진정성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한다 (Baudrillard,1988; McCrone,1995; 심창섭·칼라 산토스, 2012). 또한 그들은 관광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관광대상의 진정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실존적인 진정성은 존재론적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존재적 상태라는 개념을 관광 분야에서 사용하면서 관광객들이 관광을 통해 진정한 경험을 추구하며 자신 존재의 실존적인 상태, 즉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Wang, 1999). 앞에 세 가지는 모두 관광객체인 관광대상의 진정성을 분석하는 반면 실존적인 진정성은 관광주체인 관광객이 관광경험의 진정성을 다루는 것이다.

사물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짜 이벤트를 더 잘 믿고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고 지적한다(Boorstin, 1964).

- 6) 고프만(1959)은 사회체계의 구조를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는데, 무대화되는 사회적인 연행의 전면은 연행자와 관객이 만나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연행자는 사회행위를 연행하고 관객은 이 연행을 보고 진정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관객과 외부인에게 폐쇄되어 있는 후면에서는 전면에서 진행되는 연행의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신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MacCannell(1976)은 고프만의 이 “전면부”와 “후면부” 이론을 바탕으로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을 제기한다. 관광장소가 현대관광개발에서 관광객에게 전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무대라고 본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지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경험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 후면으로 침입해서 자신의 관광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관광객의 의도를 파악한 관광개발자는 그들을 위해 가짜 후면부, 즉 “무대화된 후면부”를 만들어내서 이 후면부에 노출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의도적인 전시일 뿐이고 관광객이 가지는 진정성에 대한 욕구와 관광배경에서의 무대화된 진정성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진정성에 관한 여러 관점은 유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광대상으로 만들어진 전통문화를 다루며 관광운영자와 관광객의 전통에 대한 재현과 수용을 고찰하기 때문에 구성주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진정성 관점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진정성은 구성주의의 주장대로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완전히 다르고 늘 변화하는 다원화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객관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관광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모두 원본이나 원형을 가리킨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서 진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공유된다는 뜻이다.

지적했듯이 관광객의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관광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경험이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관념, 기대 그리고 이미지를 관광대상인 문화에 투사하는 기호이자 하나의 상징적인 진정성(Symbolic Authenticity)이다(Culler, 1981). 따라서 같은 사회에 속하는 관광객들은 국가의 통제, 사회적 교육, 대중매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집합적인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것이다. 진정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인지체계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성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민족 정체성과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중국,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체로서 정책 제정, 관광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전통"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전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통문화관광에서 가지는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진정성의 인식은 사회 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사회적 인식, 관념, 기대, 가치를 관광대상이 된 전통문화에 투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인 경험이 부가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공동의 사회적 경험이나 인식으로 형성되는 진정성은 상대적인 객관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진정성의 개념은 하나의 "객관적"인 상징적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진정성의 문제는 불가피한 논의의 대상으로서 권숙인(1998)은 일본 아이즈 북고회의 관광생산에 대한 연구에서 북고회가 지역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관광객의 호기심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상품에 아이즈의 진정성이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관광생산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었다. 김용진(2003)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문화마을에서의 문화적 재현이 각 종족문화의 진정성과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국민문화로서의 다문화주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재현되는 종족문화가 원형 그대로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문화마을에서의 근무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종족문화를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한다.

이러한 논의에서처럼 관광지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과거의 전통을 표현하는 유산관광, 역사관광과 같은 형태의 관광에서는 진정성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다(Urry, 1990: 94). 관광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전통"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고 이는 전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진정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관광에서 나타나는 전통에 대한 진정성 인식은 현대 관광객의 전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전통의 계승과 재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관광인류학에서 다루었던 진정성 개념을 확장시키고, 관광을 위해 전통을 재현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유산으로 된 전통에 대한 관광은 관광운영자가 전해온 전통유물에 기초해 그것을 활성화하고 보여주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재현된 전통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전통적 요소 자체의 사실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주체들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한옥마을 관광지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운영자, 한국인 관광객 및 중국인 관광객이 가지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진정성 인식을 바탕으로 관광에서 전통의 재현과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한다.

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대상인 관광지와 관광주체인 관광객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데, 각각은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을 이루는 실체와 인식의 측면으로서 관광운영자가 재현하는 전통과 관광객이 수용하는 전통을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전통마을의 관광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원래 존재했던 전통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래 있던 곳에서 전통가옥을 옮겨 오거나 옛날 모습대로 새로 지어서 전문적인 관광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정주형 유산, 민속마을, 역사마을이라 일컬어지고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관광개발의 과정에서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한국 민속촌처럼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에서 과거의 건축양식, 생활모습 등 민속을 전시하는 테마공원은 관광객들에게 전통의 외형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존된 전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에 비해 남산골 한옥마을은 하회마을, 양동마을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마을에 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마을공간이기 때문에 관광의 목적이 더욱 분명하며, 민속촌과 달리 마을내의 한옥이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실제의 옛날 전통가옥으로서 더 높은 전통성을 지닌다. 이때 전통은 보존과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현대에서 새롭게 구성된 전통이다.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은 도시의 역사문화공원으로서 가옥 및 실내가구의 전시뿐만 아니라 전통혼례, 민속공연, 옛날의 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서, 전통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남산골 한옥마을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배경과 진행과정에 관한 자료수집이 필요했다.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및 서울시 도서관을 이용해서 관련된 각종 보고서, 정책자료 및 신문 보도자료들을 검토했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를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에 관한 기록 그리고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의 운영 자료를 참고했다. 문헌조사는 2013년 3월과 8월 말의 보조조사 때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2013년 3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 학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처음 4월에는 주말의 시간을 이용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주력했다. 한옥 및 전시하는 대상들을 관람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코스에 동반하여 그들의 관광행위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5월부터 8월까지 주6회(화요일 휴관일 외) 동안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 보조의 역할로 관리소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고 한옥의 이용이나 문화행사 운영 등의 영역에 내부 구성원의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근무 시간 동안에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참여관찰을 진행했고, 쉬는 시간에는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운영자 6명, 상설 행사의 담당자 4명, 전통공예관 및 안내센터 판매원 3명, 그리고 주말 등 특별 행사 기획자 몇 담당자 9명, 총 22명 근무인원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재현된 전통에 대한 운영진 측의 생각과 실제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계속 관광객을 관찰하고 그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기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가이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관람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가이드의 안내는 관광객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7) 근무인원에 대한 인터뷰는 모두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관광객에 대한 인터뷰는 녹음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고 녹음 없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진행한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관광객의 인터뷰 자료는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기록된 노트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정리된 것이다.

주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인터뷰보다는 단체의 관광코스에 따라서 가이드의 설명 내용과 해석 방식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관광객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약 50명의 관광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전통에 대한 인식을 고찰했다. 또한, 8월 말에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남산골 한옥마을에 관한 서울시 정부의 관리정책에 대한 보조조사를 진행했다.

관광대상으로서 전통의 재현과 수용 과정에서 진정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연구 지역인 남산골 한옥마을의 개관을 소개하는 장이다. 여기에서는 남산골이라는 지리적 공간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역사적인 변천을 규명한다. 이와 함께, 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이 서울시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전통문화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정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정한 전통을 재현하는지를 고찰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 소속이면서 위탁운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시와 운영업체 두 주체를 중심으로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대중 관광객에 보여주는 “진정한” 한국 전통을 재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한옥의 전시과 더불어 전통혼례 시연, 예절교육, 전통놀이, 민속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통문화 요소를 강조하고 활용하는지, 담당자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전통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광객에게 “진정한” 전통을 부각시키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관광객을 내국인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재현되는 전통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진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인식은 관광객의 관광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에 단순히 관광지에서 관광대상에 대한 인식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국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산골 한옥마을의 개관



그림1 남산골 한옥마을 배치도
(출처: 서울시 문화재과)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은 90년대부터 조성된 관광장소이지만 “남산골”이라는 명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리공간으로서 마을 내의 한옥들도 긴 세월 동안 내려온 역사의 유산이다. 본 장에서는 남산골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에 이루어진 남산골 한옥마을의 조성 과정을 살펴본다.

1. 역사 속의 남산골

공간의 개념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 개념과 인간에 의해 점유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인지적인 공간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인지적인 공간을 연계하여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 공간은 기념비나 상징 공간의 구성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특정한 장소에 재현하고 기억을 조작한다(Halbwachs, 1992; Nora, 1996; Yoneyama, 1999; 황홍휘, 2005)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산골”이라는 지리적 공간은 긴 세월을 걸쳐서 각 시대마다 다른 기능과 이미지로 존재해왔는데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후 도시개발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남산골은 남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였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과거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3가, 남산동1가·2가·3가에 걸쳐 있던 마을을 일컫는다(서울지명사전, 2009). 오늘날의 남산골 한옥마을은 실제로 필동 2가에 있는 것이고 남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라는 원래의 뜻을 의미도 하면서 한옥마을이 가진 역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남산의 일부인 남산골은 남촌으로 알려지면서 변화해왔다.

오늘날 남산골을 비롯한 지역이 조선시대에는 “남촌”으로 불렸는데 이는 사람들이 직접 부르는 이름이기보다는 북촌에 대비하여 존재하는 이름이다. 조선후기의 도성 한양에서는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주거공간이 달랐는데 청계천 이북 지역은 북촌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청계천 이남으로부터 남산기슭의 주거지에 이르는 데까지는 남촌으로 일컬어졌고, 이 외에 중촌, 상촌, 하촌도 있었다(고동환, 2006). 북촌과 남촌은 모두

양반이 모여 사는 반촌(班村)이지만, 북촌은 북악산 아래인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지역으로 집권양반들의 집단거주지였고, 반면에 남촌은 남산 아래의 지역으로서 몰락한 양반이나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다. 특히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는 충무로 지역은 진고개⁸⁾로 불렸는데 땅이 낮고 협소하여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습하고 진흙길이 되어서 다니기가 불편한 지역이었다. 물이 고이지 않아서 밭농사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양반들은 이곳에 살기를 선호하지 않았다(양승우, 2003 참고). 이곳에는 주로 가난한 양반들이나 과거 시험에서 생원에만 합격했던 불우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고, “남산골센님”, “남산골딸깍발이”로 놀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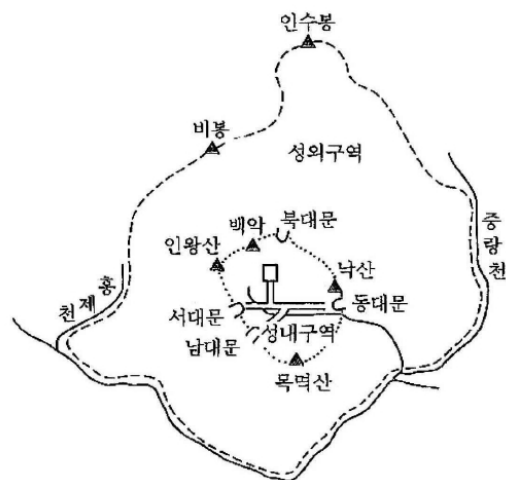


그림2 정도초기 서울의 도시 시공간구조(고동환, 2006)

다른 한편, 남산은 한민족과 서울시의 상징으로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서울의 중앙지대를 둘러싸는 내부 사산을 구성한다. 조선시대에 남산은 도성에서 풍수지리상의 안산(案山)⁹⁾으로서

8) 진고개(지금 충무로 2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도 이현(泥峴)으로 불렸다. 남산에서 뻗어 내려온 고갯길에 흙이 매우 질어서 비가 오면 왕래가 어려운 정도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었다(이경재, 2003).

9) 집터나 뒷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나라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기능을 했고, 도성 남쪽의 보호벽으로서 봉수대나 성곽을 세워서 국토를 방위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나라에서는 남산에서의 벌목과 채석 등을 금지했는데 특히 소나무는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산은 송금지구(松禁地區)로서 보호를 받았다(김한배, 2003: 78). 이러한 이유로 남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잘 간직되었으며, 오늘날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는 청학동(靑鶴洞)을 비롯한 지역은 흐르는 계곡과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정자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유명한 여름철 피서지가 되었다. 또한 궁궐 후면의 북악산에 비해 남산은 위치나 지형적 특징 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라서 시인들이 시를 짓고 모임을 하거나 절기에 따라 씨름놀이,登高(登高)놀이, 순성놀이 등을 여가 행사를 즐기면서 풍류장과 휴식처로 이용했다.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남산골센님들이 사는 곳은 일본인이 거주지로 정해지게 되었고, 남산은 도성과 북쪽의 궁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일제의 침략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조선 500년 동안 서울은 외국인의 거주를 용인하지 않았고 최초의 일본공사관도 서대문 밖에 있었지만,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일본공사관은 습격을 받아 불타버리자 이후 입경한 일본군은 지금 충무로 2가에 있었던 금위대장이종승(李鍾承)의 집을 공사관으로 점령하고 주변의 민가도 점거해서 남산일대에 주둔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일본인은 남촌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넓혀갔다.

1884년 일본공사관은 교동으로 임시 이전하고 그 곳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인해 다시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 갑신정변 후 충무로 2가, 즉 지금의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의 땅은 일본공사관 부지로 선정되었고 1894년에 이곳에 공사관 건물을 신축하여 이후에 통감관저와 총독부관저로 사용했다. 당시의 조선 정부는 진고개가

남촌의 끝이면서 문자 그대로 진흙 지대였기 때문에 거주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요구를 쉽게 승인했던 것이다.

1885년 후 일본인의 도성내 거류가 허용되었고 공사관을 중심으로 이 부근의 왜성대¹⁰⁾와 진고개 일대에 일본인의 집단 거주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인 가옥이 하나도 없었지만 조선인의 가옥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고 빈 터를 사서 일본식 가옥을 짓기 시작했고 점점 일본인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의해 이사하거나 도성 밖으로 밀려나서 결과적으로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남촌과 조선인의 거주지인 북촌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시대에 부자마을과 빈곤마을로 구분된 부촌과 남촌은 이제 조선인의 거주지와 일본인의 거주지, 식민 당한 자와 식민자간의 구분에 상응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글 신문이나 잡지에는 “남촌의 일본인의 마을”, “남촌 시가의 극성”, “북촌의 참상” 등과 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남촌을 “왜놈들의 마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남촌은 충무로 일대부터 남산동, 회현동, 예장동, 필동, 목정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범위에 비해 지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인의 진입 이후 남촌의 실제 모습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남촌의 중심지역인 충무로라는 이름은 한민족이 숭상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무공을 따라 동명으로 정해 사용한 것이었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그들과 유서 깊은 거리라고 간주되었고 그들의 임의대로 본정통(本町通)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충무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남촌 지대를 본정통에 포함시켜 일본인 변영의 중심지대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이경재, 2003).

또한 진고개의 토질이 좋지 않아서 생활에 불편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거주지를 남대문 방면으로 확대시켰고 진고개부터 남대문까지 도로개조

10) 남촌 예장동 일대는 예로부터 옛날에 군인들의 무예연습장이 있어서 “예장”으로 부르다가 음이 전환되어서 “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 지역은 일본군의 주둔지가 되었고, 이곳은 속칭이 왜장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은 “왜장(倭將)”과 “왜성(倭城)”과 관련하는 곳으로 생각해서 거류 초기부터 이곳을 왜성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신들의 지역으로 보았다(박경용, 2004).

작업을 시작하여 하수도를 매설하여 그 지역의 하수를 통하게 했다. 이것은 서울 도시 내에 하수도 사업의 시초였다. 본정통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근대적인 상품을 진열하고 조선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은행, 백화점, 상업회의소등 근대적 상업에 위한 건물들을 설립하여 상업에 발전시키고 서울의 상권을 장악해갔다.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창덕궁과 조선총독부가 위치한 지역이 정치적인 중심 공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인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진고개를 비롯한 남촌 지역은 상업의 중심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동환, 2006: 26). 또한 일본 요릿집과 과자집, 다방, 카페 등 장소가 생겨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계급 중 친일파의 새로운 근대적인 여가공간으로 환영을 받았다.

3)해방 이후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차지했던 남촌지역은 다시 서울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촌은 개발과 훼손의 이중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광복 후 일본인이 그대로 가옥을 비우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산 일대의 가옥을 팔고 처리하여 조선인의 거주지로 삼았다.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초까지의 혼란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산에 유입하고 정착하여 해방촌을 만들었으며, 일본인의 거주지는 학교, 공공기관 등의 시설과 민족의식에 관련된 기관으로 대체되었다(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1991). 60년대에 들어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남촌이 두드러지게 변모했는데, 특히 학교, 군대, 공공 기관 등이 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과거 왜성대가 있던 부지에는 KBS중앙방송국, 숭의여고 등이 들어섰고,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학교, 교회, 미군부서시설, 외국인주택 등이 남산공원의 부지를 차지하여 신축되었다(박명자, 1996; 김한배, 2003: 104 재인용). 1962년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남산골의 대지로 들어와서 주둔했다. 이후 사업화에 따라 여러 기관과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섰고, 남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으며 충무로 일대에는 호텔,

외국인 주거지 등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섰다. 80년대에는 남촌의 중심 주거지였던 남산동, 필동, 회현동의 남산골 일대에 일본식 주거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근대화된 고층주택과 아파트로 대체되었다.

한편, 서울 도시의 확장으로 강남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남산에 대한 개발과 훼손도 진행되었다. 강남의 개발 과정에서 강북은 강남의 개발정책에 종속되었는데, 강북과 강남을 연계시키기 위한 남북 교통망 중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남산이었다.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연속적으로 남산 1호, 2호, 3호 터널을 개통하고 이 세 개 터널의 진입도로를 닦기 위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지형을 절개하여, 남산동, 회현동 등 남촌의 중심을 남북방향으로 전단했다. 이처럼 대규모 고층건축물의 건설, 도로토지의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남산골을 비롯한 남촌지역의 고유한 도시 활동, 역사성, 문화성은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후 도시개발을 거치면서 남산으로 대표로 된 남촌지역은 각 시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형성되는 지리적인 공간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부여한 이미지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필동 충무로 2가에 해당하는 남산골 일대는 남촌의 중심지대로서 남촌이라는 큰 범주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불우한 양반과 지식인들이 모인 거주지로서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빈촌으로 여겨지다가, 일본인들이 모여 살면서 서울 도성 내의 일본인의 마을로 변모되었다가, 이후 고층건축물과 군부대의 진입에 의해 90년대까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별 차이 없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울시의 600년 고도의 문화와 역사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남산의 역사와 자연경치를 제모습으로 가꾸고 남산골이 가졌던 예전의 역사적인 위상을 되찾기 위해 남산골의 자리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전통문화공원으로서의 한옥마을

1) 한옥마을의 전통한옥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이전·복원된 한옥은 원래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된 한옥들이다. 이 건축물들은 전통 한옥을 대표할 수 있고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조건축문화재로 인정되고 선정되었다. 1994년 여러 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삼청동 오위장(五衛將) 김춘영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삼각동 도편수(都邊首) 이승업 가옥, 옥인동 윤씨 가옥과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¹¹⁾인 5채 한옥이 이전 복원의 대상 건물로 확정되었는데(서울특별시, 1998), 각각은 일반평민의 집부터 최상류층의 사대가까지 조선말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며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한 다섯 채의 한옥은 최초 1976년과 1977년 이 년 동안 서울시의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이다. 그때 주로 건물의 낡은 상태가 발견되었는데, 1990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훼손의 정도가 심각해졌음이 발견되었고, 이는 주로 건물의 노후화와 한옥의 소유자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없이 합부로 증축하기 때문이라고 간주되었다(조교환, 2010). 또한, 도시개발에 따라 현대적 건축물이 급속하게 생겨나는 과정에서 목조건축문화재 대한 보존과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다른 곳으로 한옥을 이전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윤씨 가옥은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면서 증축이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위치가 있는 옥인동에서 이축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1997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서울시 민속자료 23호)이 해제되었다.

11) 당시 정했던 이름은 각기 오위장 김춘영 가옥,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 친가,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로 되었다. 본문에서 앞 뒤 명칭이 일치하도록 현재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명칭의 변경과정은 뒤 글을 참조.

표1 남산골 전통가옥 이전복원 현황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재구성)

문화재명	가옥 년대	건물명	면적(m ²)	공사범위
삼청동 오위장 김준영 가옥 (민속자료 8호)	약 1890년대	안채 사랑채	167.9	-해체 이전 복원 -석재, 목재, 기와 등 교체보수
관훈동 민씨 가옥 (민속자료 18호)	약 1800년대 전	안채 사랑채 별당채 사주문	422.2	-해체 이전 복원 -석재, 목재, 기와 등 교체보수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민속자료 20호)	1860년대	안채 사랑채 사주문	237.7	-해체 이전 복원 -석재, 목재, 기와 등 교체보수
옥인동 윤씨 가옥	1910년대	안채	226.1	-신축 -신재 100%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민속자료 24호)	약 1900년대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사주문	536.3	-해체 이전 복원 -석재, 목재, 기와 등 교체보수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된 한옥들 가운데 윤씨 가옥을 제외한 다른 4채는 모두 원래의 자리에서 해체하고 이전하는 것이고 이전 과정에서 석재, 목재의 교체 등으로 일부 보수를 했다. 윤씨 가옥의 경우에는 남산골의 대지에서 완전히 신축했는데, 문화재로서의 전통성과 역사성은 상실했지만 한옥의 옛날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시적 기능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전·복원의 작업 과정에서 용지와 예산 문제 때문에 한옥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번의 훼손과 변모를 겪은 후 남아 있었던 최종 모습대로만 이전 복원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옥의 재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승업의 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담이 없는 상태로 보여주는 것은 조선시대 가옥을 지을 때 기본적인 구획의 원리였던 내외법(内外法)¹²⁾을 지켜야

12) 조선시대의 관습법으로 남녀 간에 자연스러운 접촉을 금했다. 『예기(禮記)』에 따라

하는 것을 재현하지 못한다(이상억, 1998: 73). 또한, 남산 기슭에서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방향과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한옥들을 배치할 때 원래 대부분이 남향으로 된 가옥들을 서향으로 바꾸게 되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전하는 과정의 초기에 사용되었던 각 한옥의 이름은 오늘날 사용되는 이름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관훈동 민씨 가옥과 옥인동 윤씨 가옥은 처음에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과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로 불렸는데, 2010년의 신문 보도들에 따르면 2년에 거친 사료조사로 박영효의 가옥은 실제로 옆집인 민영희의 집이고 윤씨 치가는 윤덕영의 집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민영희와 윤덕영의 집에 대해 “두 가옥은 상류층 가옥으로서 갖는 건축사적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역사성은 달라지기 때문에”(매일경제, 2010.9.29)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두 가옥의 명칭을 바로잡았다.

2) 남산골 한옥마을의 조성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장기계획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는 것을 배경으로 1990년대 서울시에서 추진된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에서는 중구 필동 소재 전 수도방위사령부 터에 전통정원과 한옥마을을 포함하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는 남산의 역사적 및 문화적 위상과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제모습으로 가꾸어 서울의 중심적인 역사, 문화휴식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 복원된 5채 한옥에 옛날의 가구와 도구 등을 설치하여 전시하고, 다양한 공연, 문화체험 등 전통문화행사들을 개최하여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교육과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 남산은 국가 도성의 안산이자 국토방위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내의 명산과 수려한 명승지로서 시민들의 풍류장과 놀이터로 활용되었다.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은 남산의

서 가옥에 중문(中門)으로 내외사(内外舍)를 나누며, 내사는 여자의 생활공간이고 외사는 남자의 생활공간이었다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이러한 기능과 옛날의 모습을 되찾고자 한 것으로, 자연보호, 역사문화재현 및 경관관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역사문화 방면에서는 역사유적의 복원과 함께 남산 일대의 민속신앙, 민속놀이, 남주북병(南酒北餅)¹³⁾을 비롯해 옛 생활 속의 무형문화유산을 유형화하고, 감수성 유도, 공간 배분, 운영과 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남산을 문화체험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다(서울특별시, 1991). 이를 위해 남산골 조성 계획을 세우고, 남산 북측의 기슭에 있는 군부대 위치에 전통마을, 전통음식, 전통공예, 마당놀이를 포함한 전통생활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시 및 계승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통문화동네를 조성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9월에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와 협의해서 476억원으로 7 필지를 포함한 토지 18950평을 수방사로부터 매입하였고, 1990년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 기본방침의 확정에 따라 1993년 남산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같은 해 12월 말에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전통정원의 조성, 전통한옥의 이전복원이 포함된 총 2차 공사를 거쳐 1998년 1월에 준공을 하였고 1998년 4월 18일에 남산골 한옥마을이 공식적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13) 남촌 사람들은 가난해서 술이나 빚어서 술지게미로 허기를 달래었는데 북촌 사람들은 곡식이 넘쳐나 떡을 빚고 잔치를 치를 정도로 부유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지식백과 한 국사 천자문, 2007).



그림3 남산골 한옥마을 전체 모습

(출처: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가옥과 그 밖의 전통정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정원에는 남산국악당과 서울천년타임캡슐이 포함되며, 남산의 훼손되었던 지형과 전통식물을 복원하고 정자, 계곡, 연못을 조성한 한국 전통양식인 정원으로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고, 전통가옥은 이전 복원된 5채 한옥을 기초로 전통공예관을 설치하고 우물, 장독 등 어울리는 조경을 형성한 공동광장에 목조의 대문을 붙여서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이룬다(본문에서 말하는 남산골 한옥마을은 이 부분을 가리킨다). 전통정원 부분은 서울시 문화재과가 직접 관리하는 반면 전통가옥 부분은 서울시 소속이지만 서울시 문화재에 관한 법령¹⁴⁾에 의해 개관 초부터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영할 수

1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1조(시 소유문화재의 운영위탁)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있는 인원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전통한옥을 관리하고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 운영업체였던 한국문화재보호재단부터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장”까지, 위탁운영은 일반적으로 3년제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 개관했을 때는 문화행사 없이 가옥만 관리했는데, 이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99년 하반기부터 행사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조교환, 2010). 올해 행해지는 행사들에는 크게 세시행사, 체험행사, 기획행사가 있으며, 그 외에 전통공예관에서도 전통공예와 전통예술을 전시하는 전시행사와 예절학교, 한문 및 한시를 비롯한 전통문화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행사만 각 운영업체가 한옥마을에 맞추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들은 초기 제정하던 행사들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업체들은 매년 연초에 서울시의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와 파악 하에서 큰 분류의 행사들을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예부터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는 프로그램들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한다. 최근 몇 년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7-2009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2012년 예문관, 그리고 올해(2013년) 한국의 장 세 업체가 맡았던 기간 동안의 행사들을 비교해 보면, 세시절기 민속행사를 재현하고, 전통혼례 시연을 하고 전통문화체험과 전통교육강좌를 여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표2 남산골 한옥마을 행사(조사 기간 동안)

행사구분	행사내용	
세시행사	한식, 단오, 칠석	
전시행사	전통현악, 화예조형, 회화, 옹기, 공예디자인, 전통규방, 민화 등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절학교	
	전통문화강좌	서예, 사군자, 한문강독, 한시, 다례, 남산골 서당

기획 프로그램	남산골 한옥이야기(매주 토요일)	
	전통혼례시연(매월 2,4주 일요일)	
	토요일문화공연 “늬”, 일요일문화공연 “쉽”(4~6월 토,일)	
	한밤의 풍류마당(7~8월 금,토)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주말)	탈 만들기, 전통팽이 색 입히기, 활 만들기, 잠자리 색 입히기, 규방공예
	한풍문화마실 (매일 상시)	한글 써보기, 다례 체험, 전통의상 입어보기, 한지공예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은 문화재인 한옥의 건축구조를 관람하며 조상들이 사용했던 침구, 옷장, 서책 등의 물건이나 농촌생활의 도구를 구경하고,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남산골 한옥마을은 단순히 한옥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장소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전통문화의 재현 공간이 된다. 한옥마을 조성 초기에는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오늘날의 남산골 한옥마을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의 견학이나 및 서울시 시민들이 소풍하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표3-1 남산골 한옥마을 관광객 상황(2011년,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소)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11년	1,817,615	323,858	2,141,483
일계	4980	887	5867

III. “진정한”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노력

전통문화관광에서 “전통”의 재현은 관광개발자와 운영자에 따라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통”에 대한 운영자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그들이 이해한 전통을 관광객에게 재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주인 역할을 하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전통을 한옥마을에서 재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1.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 이미지 창출

처음 개관한 남산골 한옥마을은 한옥 5채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 상태로 지속되다가, 1999년 각종 문화행사가 시행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전통가옥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전통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은 “서울 전통문화의 관광명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애초에 서울시가 정립했던 남산골 한옥마을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 소속이지만 직접적인 관리자는 민간 전통문화 전문 업체이다. 서울시는 재정지원 및 전체 관리에 대한 감독과 함께, 대중에게 남산골 한옥마을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옥마을은 문화재인 한옥 5채를 모아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보존이며 옛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야 전통 문화재의 활성화가 고려된다. 이러한 방침 하에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문화유산”, “주거생활의 박물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남산골 조성사업보고서(1993)에 따르면, 전체 남산골 한옥마을은 “교육의 산실”과 “관광명소”로서 현대 대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에서

연속적이고 특색 있는 역사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가운데 한국적인 전통공연,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옥마을을 종합적인 한국전통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시에 맞춰서 민속놀이를 전개하고 전통공예관에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을 전시하며 판소리, 탈춤 등 문화재 공연을 열고 있으며, 서울시의 공식관광사이트,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에서는 “한옥촌”, “서울의 민속촌”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의 모습을 재현하는 전통성이 있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전시나 공연을 통한 전통성과 함께 남산골의 옛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 공간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홈페이지나 안내서에서 나오는 한옥마을에 대한 소개에는 조선시대의 필동이 지닌 관광명소로서의 긴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남산 북쪽 기슭 한옥마을이 들어선 필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이 있어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이름 있던 곳이다. 또한 청학이 노닐었다고 하여 청학동으로도 불렸다.한양에서 가장 경치 좋은 한양5동의 하나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곳의 옛 정취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전통정원을 조성하였고 전통한옥 다섯 채를 옮겨 놓았다.” (남산골 한옥마을 팸플릿)

“남산 아래 한옥촌을 휘감은 너른 자연은 절로 한자락의 풍류를 부른다.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더니 북촌에는 떡이 맛있고 남촌에는 술이 향기롭다 했다. 당파 세력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너른 자연을 보니 술과 풍류를 즐긴 남촌 선비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그 정취도 충실하게 재현했다. 골짜기를 만들어 물이 흐르게 하고 전통 조경을 되살렸다.그 자연의 풍류 또한 진정 남촌답다.” (서울시 공식 관광 사이트-Visit Seoul)

또한, 개관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남산골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딸각발이’와 ‘샌님’의 본거지인 남산골이 1백여 년만에 옛 모습을 회복,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게 됐다.” (동아일보, 1998.03.06 기사)

“‘남산골딸각발이’.....서울 필동 남산자락에 살던 선비들을 일컫던 말이다. 짝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염치를 모르지 않았던 옛 선비들, 그들이 살던 집에 한옥마을을 옮겨 놓았다.” (동아일보, 1998.10.28 기사)

이처럼 과거 샌님들이 살았던 남산골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한옥마을은 단지 한옥을 이전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놀거나 휴식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의 과거를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서울의 전통을 되살리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 서울시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관광이나 도시 계획보다는 현대화된 서울 속에서 민속문화를 전시하고 전승하며 제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서울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실제의 주거지였던 남산골에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생활양식이나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와 역사를 전시하는 전통마을, 전통공예를 전시하고 계승시키는 전통공예관, 남산의 자연경치를 복구하는 전통정원으로 이루어진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대표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 밖에 있지만 전통음식, 전통혼례, 예절 등을 전시하는 “한국의 집”과 함께 서울시내 한국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동네로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2. 옛 모습을 재현하는 한옥

1) 전시된 한옥의 양상



- 1: 정문
- 2: 관리소사무실
- 3: 이승엽 가옥
- 4: 김춘영 가옥
- 5: 민씨 가옥
- 6: 윤택영 재실
- 7: 윤씨 가옥
- 8: 전통공예관

그림4 전통가옥 부분 (출처: 남산골 한옥마을 안내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시되는 한옥은 대문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삼각동 도편수 이승엽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과 옥인동 윤씨 가옥이다.

이승엽 가옥은 원래 삼각동 36-2번지에 있었고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도편수였던 이승엽이 1860년대에 지은 집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가옥은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의 소실을 거치면서 지금 남산골에서는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으며 안채는 “丁(정)”자형이고 사랑채는 “ㄴ”자형이다.

김춘영 가옥은 조선시대 말 오위장이 되었던 김춘영의 가옥으로 원래 종로구 삼청동 125-1번지에서 남산골로 이전했다. “ㄷ”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를 연결시키고 대문간이 직접 트이는 대신에 꺾어서 들어가는 방식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조건에 잘 적응한 한옥으로 보인다. 마당은 다른 가옥에 비해 더욱 넓어서 안채 뒤에 큰 전들로 방화벽을 만들었으며 일반 평민의 주택보다 격조가 높다.

민씨 가옥은 옛 종로구 관훈동 30-1번지에 있었던 민영휘 주택의 일부이다. 이전 전에 훼손으로 인해 안채와 연결되는 중문간채만 남아 있었는데 남산골에서 건넌방을 되살리고 사랑채와 별당채를 새로 지었다. 크고 넓은 가옥 규모는 당시 최상류층 주택으로서의 지위를 보여준다.

윤택영 재실은 원래 동대문구 제기동 224번지에 있었던 것으로서 윤택영이 딸인 순정효황후가 창덕궁에 들어갔을 때 지었던 가옥이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재실로서 한옥구조에서 드문 “元(원)”자형이고 제일 높은 “一” 위치의 사당이다.

윤씨 가옥은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인 윤덕영의 가옥 일부로 고택이 너무 낡아서 이전하지 못 하고 남산골 현지에서 새로 지은 것이다. 안채와 마루방, 대문간을 연결하여 “口”자형으로 배치되었다.

다섯 채 한옥 중 신축한 윤씨 가옥 외에 다른 네 채는 원 위치에서 기존의 한옥을 해체하고 이전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의 필지에 다시 복원한 것이다. 복원 과정에서 나무가 낡거나 기석이 훼손된 상태가 적지 않아서 목재, 석재의 교체 작업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가옥 안에서도 어떤 부분의 나무는 새롭게 보이고 다른 부분의 나무는 낡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벽장의 칠을 볼 때에도 오래 되지 않은 시기에 칠해진 흔적도 남아 있다. 이러한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실제로 보기에 전 가옥들은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옥 자체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가옥마다 방의 기능에 따라 가구를 배치하여 옛날 사람의 생활 양상을 전시한다. 안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단으로 만든 이불과 원기둥꼴의 전통베개를 두고, 사랑채에는 문갑, 나무책장, 서안, 사판, 장기관 등 남자들이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다양한 주방용구와 찬탁들을 배열하고 전시한다. 가끔 마루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전통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도 전시된다. 예를 들어, 전통 혼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민씨 가옥의 안채 마루에서는 전통혼례 때 사용되었던 가마와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 신랑, 신부 가인을 전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옥마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는 한옥의 기본적

기능과 구조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한옥에서 이루어졌던 옛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마당에서는 전통적인 조경과 어우러지는 장독대, 겨울에 김치를 보관하는 움막, 돌절구, 우물 등 현대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옛날의 생활도구들을 배치하여 옛날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양상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5.6 가옥 내, 외의 배치

남산골 한옥마을의 다섯 채 한옥은 모두 이렇게 가옥의 안과 밖을 잘 꾸미고 옛날의 모습처럼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운영주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골 한옥마을이 조성되었을 때부터 문화재인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운영업체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한옥에 대한 관리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기존에 전시된 한옥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그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한옥에 대한 관리와 전시에 기울이고 있다.

2) 관리운영자들의 한옥에 대한 이해와 행동

2013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의 장”이라는 전문적 전통문화 운영단체이며 올해 처음 한옥마을에 대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장의 관리운영인원은 약 20명이 있는데, 상설 행사를 담당자 4명, 전통공예관 및 안내센터 판매원 3명 외에 관리사무소 6명과 시설관리팀의 5명이 주로 한옥을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말에는 전통공연과 문화체험행사의 진행에 따라 담당자들도 현장에 나오게 된다. 시설관리팀의 근무자는 전 업체가 운영했을 때부터 한옥마을에서 가옥과 가구를 지키고 안내관, 장식물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작은 공사를 담당해온 노동자로서 이번의 업체와 새로 계약해서 계속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관리사무소의 인원들은 업체의 직원들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남산골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한옥의 관리, 문화체험에 대한 감독, 연출할 때의 보조 등 전반적인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위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전문 선생 외에는 대개의 근무자가 문화재 혹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전통문화를 경험하러 온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업무의 과정에서 몸소 이러한 측면을 익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한옥을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인터뷰1: 관리자 S씨, 남, 20대]

“제가 올해 초에 여기에 들어와서, 아직 일한지 6개월밖에 안 돼요. 재미있어요. 원래 한옥을 잘 모르는데 일하다가 배우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충 알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따라 민속촌에 가서 한옥의 안채, 사랑채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접했지, 창호의 문양, 마루의 차이 이런 건 여기서 보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옥 각각의 역사배경을 알게 되서 재미있었어요. 그 중간의 가옥—민씨 가옥이잖아요, 원래는 부마도위 박영효의 가옥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니라고 해서 지금의 민씨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몰랐던 걸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게 재미있지 않나요?”

한옥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한옥마을에의 근무자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수반되는 한옥에 대한 인식은 재미없음에서 재미있음으로, 무관심에서 관심 있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발생시킨 변화이다.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해서 모두 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무자들 중에서도 한옥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근무자들의 경우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발견된다. 관광객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남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2: 민씨 가옥 안내원, 여, 50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배워야죠. 문고를 받아서 배우고, 지금도 계속 스스로 책 찾아가며 배워요. 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죠. 여기서 일 배우면서 전통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한옥에서 살았고 움직였는지 찾아보다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게 꽤 흥미롭고요.”

[인터뷰3: 전통공예관 판매원1, 여, 20대]

“여기 오기 전에는 뭐 전통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들(파는 수공예품) 다 몰라요. 와서 다시 보게 되었죠. 손님들에게 추천하려면 자기도 잘 알아야 추천할 수 있으니까. 점점 관심이 생겨요. 이 옷(근무할 때 입어야 하는 개량한복)이 제 눈에는 하나도 안 예쁜데, 제가 사실 한복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손님들이 보고 예쁘다고들 하니까, 아~완전한 전통

한복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옷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좋고 생각 않고 있었던 아름다움도 알게 됐어요.”

근무자들은 근무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통가옥 혹은 전통수공예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업무 대상인 한옥이나 수공예품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필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한옥마을의 근무자들이 최저 3개월 이상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일하면서 매일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일하고 쉬고, 전통적인 사물과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주변 환경을 접하면서, 그들이 다루는 전통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된다. 한옥마을의 근무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을 관광객에게 표현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상상 속의 것”, “한국적인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 전통은 과거의 것이고 한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자로서 그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접근하는 “전통”이 한국의 진짜 전통을 대표하는지의 여부, 어떻게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진정한 전통”을 경험하는지는 문제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옥 및 가옥 내부의 가구 배치와 전시는 운영단체가 관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온 것이다. 현장의 근무자들은 이러한 제한 속에서 한옥을 보수하거나 설명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다. 실제 근무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무자도 있다.

한옥마을의 정문 옆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는 한옥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로 CCTV로 한옥의 상태를 감시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앉아 근무하는 외에 매일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 마당에 들어가서 각각의 한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가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험의 진행 상황과 한옥 및 가구들의 상태를 점검해본다.

또한 매년 봄에는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진행한다. 올해 2월 한 달 동안은 한옥 다섯 채를 검사하고 민씨 가옥 사랑채의 기단 밑에의 흠이 무너진 상태를 발견해서 수리했다고 한다.

[인터뷰4: 관리자S씨, 남, 20대]

“가옥을 자주 수리해요. 문화재이지만 이전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가 낡아서 교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이죠. 재료를 바꾸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승업 가옥의 대문 말이에요, 옛날에 돌로 만든 문이었어요. 지금 나무로 바꿨는데 공예관의 그 책에서 옛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윤씨 가옥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대문도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새로 만든 거예요.

(연구자: 많이 바꾸면 그럼 진짜 그때의 한옥이 아니네요.)

그래도 문화재이잖아요. 대문 말고 가옥은 그대로 보존해온 거예요. 옛날의 역사가 있는 가옥들이 보존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나무가 방부, 방충 면에서 좋은 나무를 쓰기 때문에 더 잘 보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옥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으며 역사 가치가 있는 옛날의 가옥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는 현대에 더 나은 보존과 전시를 위해 바꾸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옥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파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여기에서 가옥들은 서울시의 문화재라는 정의 하에 근무자의 인식 속에서 진정한 가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바로 Burner 지적했듯이 국가 권력이 부여한 유효성과 보호에 의해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Burner, 1994). 남산골의 한옥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의 진짜 가옥이라고 생각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자들은 한옥을 지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옥 내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옥마다 “출입금지”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로 써놓은 안내판을 마루에 놓아두고, 관광객들이 가옥 내부에 들어가는 행위를 막는다. 마루에 앉는 행위는 허용되고, 가옥 내부에 설치된 문화체험에 참가하려면 담당 선생의 인도 하에 신발을 벗어야 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안내문구로 뒷마루의 난간에 기대지 못하도록 하고, 밧줄로 부엌과 창고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처럼 남산골에서 전시된 가옥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개방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은 것으로 표명된다.



그림7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부엌



그림8 마루에 있는 "출입금지"안내판

다른 한편, 가옥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행위를 막는 것은 가옥 내의 가구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옥 내에 설치된 가구들은 서울시의 문화재가 아니지만 서울시 소유의 재물로서 가구마다 명칭, 재질 등 상관 정보가 기록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해마다 현장 근무인력과 서울시 인력이 함께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재물조사를 통해서 방에 있는 가구들을 확인하고 훼손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한다. 한옥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가옥에서 전시되는 가구들이 대부분은 가옥을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온 과거의 가구들이라고 인식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로 설치된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조사를 담당하는 한옥마을의 관리자들은 가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구분보다는

오히려 가구가 가옥과 어울리는지, 방의 기능을 잘 표현하는지를 중시한다.

[인터뷰5: 관리자D씨, 여, 20대]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물건은 언제 새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있어요. (벽에 걸려 있는 서화를 가리키고) 이 그림은 옛날 것 처럼 만든 가짜 인데, 진짜 옛날 그림하고 같죠.”

[인터뷰6: 관리자H씨, 남, 30대]

“가구들은 옛날의 가옥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남산골로 이전되어서 가옥들을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옥을 꾸미려고 장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옛날 것이든 그 후 구매되는 것이든 아무튼 과거의 양식으로 보이고 배열도 진짜 한옥의 배치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가옥의 용도를 보여주는 거죠. 또 가옥과 가옥의 차이도 보여주고 상류층, 하류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보기에 한옥 내의 가구들은 한옥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옛날의 한옥실내 양상을 전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가구들은 과거부터 전해져 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가구들이 아니지만 옛날 것처럼 꾸미고 나타나서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보기에 옛날의 것과 똑같다고 느끼면 된다. 즉, 한옥마을의 관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구가 실제적으로 진짜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객에게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한옥 분위기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3) "한옥이야기"

올해 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한옥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가옥마다 마당에서 한복을 입고 가옥의 주인의 역을 맡은 안내원들이 관광객에게 한옥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다섯 명 안내원은 한옥마을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한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초빙된 전문 연극배우들로서, 그들은 조선시대의 인물의 역할을 연기한다.



그림9,10 한옥이야기

한옥마을의 운영진들은 배우들이 집주인처럼 연기를 하면서 한옥을 잘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 대본자료를 준비하여 일인칭으로 소개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내원들은 관광객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너무 연극적으로 완전히 옛날 사람과 같이 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가이드와 다름없이 객관적인 삼인칭의 설명 방식을 취한다. 집주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가옥을 지은 배경을 설명하고 가옥의 구조와 일반 한옥에 비해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들은 집주인의 역할을 연출하지 못하고 자신을 남산골 한옥마을의 운영자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처럼 한옥을 잘 보호하거나 “우리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안내원과

가옥 간에 일 대 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가옥의 안내자인 동료에 비해 자신이 담당한 가옥을 “내 가옥”으로 인식하고 말투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가옥에 대한 자량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승업의 가옥의 경우 목수였던 이승업이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유난히 예쁘게 꾸미었는데, 안내원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내 내용1: 이승업 가옥 안내원, 남, 40대]

“이승업의 집이 다른 가옥보다 꽤 예쁘죠? 여기(안채) 처마를 보세요. 가옥의 몸채와 처마의 곡선은 너무 처지지 않도록 하여 단정한 선에 여유 있는 모습이 어울리도록 지었습니다. 그 아래 처마는 겹처마를 하여 아름다움을 더하고자 했어요. 실은 이런 겹처마를 쓰는 것은 궁중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승업은 경복궁을 잘 보수해서 왕이 그의 신분을 넘어 고급스러운 표현기술을 써도 되도록 허가했어요. 창문을 보시죠, 창살의 문양도 바구니를 짜놓은 듯한 모양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것도 장인의 집으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못 하는 것이었어요.”

[안내 내용2: 민씨 가옥 안내원, 여, 50대]

“아시다시피 전통 한옥의 특징이 소박하고 단아함에 있다 하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맛을 내는 한옥은 많지 않아요. 여기 이 안채에서 본채가 건물의 중심인지라 높이가 가장 높고, 부속 건물들은 높이가 낮아지지요. 일반 한옥과 달리,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하는 한 칸도 다른 집 보다 폭이 넓어요. 내부 공간 역시 많이 넓습니다. 부엌이 3칸이 있는 것도 이 집의 부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사랑채의 모습을 볼까요? 세벌대 장대석 기반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안채가 몇 켠 있어요? 두벌대이죠. 이것은 사랑채에서 사는 남자는 안채에서 사는 여자들보다 지위가

높은 것이요, 더 이상 높으면 궁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대감이 얼마나 큰 세력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내원들의 설명은 관광객의 한옥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설명을 들으면서 “앗, 그러구나”하는 감탄과 함께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공부하러 온 관광객은 안내원의 설명을 들면서 메모를 하기도 한다. 보통의 대중 관광객에게 안내원들의 설명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것이다. 안내원들은 가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옥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감정을 곁들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가옥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과 사건을 연결시켜서 관광객을 그때의 역사적 풍경 속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가옥의 진실한 성격을 증가시킨다. 안내원의 설명을 통해 관광객들은 각각의 가옥에 대해 “이승업이 손수 만든 집”, “민영휘가 살았던 집”라는 이미지를 기억하게 된다.

인터뷰의 과정에서 안내원들이 가옥을 많이 바꾸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재의 교체, 방향의 변화 혹은 대문의 새로 지음을 다 알고 있고, 관리소에서 받는 대본에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 허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객을 대면하면 이처럼 전통가옥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면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뷰7: 김춘영 가옥 안내원, 남, 30대]

“안내원:.....이쪽의 대나무를 보셨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빼곡히 심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김춘영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교 대신 심은 거예요. 옛날에 음악 이런 것이 없잖아요, 현재는 음악을 들어서 태교에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 때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태아에게 들려줘서 좋은 영향을 주었대요.

연구자: 진짜예요? 당시에 김춘영 집에 이 대나무를 심었어요?

안내원: (엄숙하게) 그럼요, 진짜예요. 당시에서 전해온 이야기예요.”

관리소에서는 더욱 재미있게 안내하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한옥이야기의 설명 내용을 꾸미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대나무에 관한 이 해석은 기획자가 만든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진실을 고증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마당에 대나무를 심는다는 사실과 연결시킨 이야기는 있음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옥 전체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다. 안내원은 관광객의 가옥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신이 전하는 가옥에 관한 모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강조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진정한 가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한옥이야기의 안내원들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한옥을 모르는 외부인에서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하는 역사, 전통문화를 잘 알고 선전하는 안내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옥의 전통미(美)를 감상하고 좋아하게 되며, 담당하는 한옥에 대한 자랑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인식을 전환시켜 한옥을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열정 있고 생동감이 있게 안내해줌으로써 관광객에게 역사 속에서 진실로 존재해왔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한옥의 이미지를 전해주고자 한다.

그러나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 중에 “한옥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듣는 사람은 많지 않는다.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가옥의 마당에 서 있는 옛날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며, 특히 외국관광객들은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안내원들은 옛날 사람의 이미지로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인물풍경이 된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은 한옥을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조선시대의 조선인의 이미지를 더욱 흥미로운 것으로 여긴다. 안내원들은 이러한

반응에 서운해 하기보다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에 활짝 웃으면서 옛날 사람과 같은 포즈를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통문화를 선전하는 방식이죠”라고 말하는 안내원의 대답은 한국의 전통복장, 옛날의 인물 이미지가 관광객에게 전달되는 한옥마을의 전통성의 중요한 측면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남산골 한옥마을의 근무자들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가옥을 둘러싼 담의 밑에 한국의 전통적인 수목을 심고, 문화체험 방, 전통공예관, 안내센터 등 관광객들의 시선이 자주 보이는 곳에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설치하여 전통의 맛을 더해 주고자 한다. 이처럼 남산골 한옥마을은 공간 전체에 전통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진정한 한옥이면서 동시에 옛날 조선시대의 생활양식을 제대로 재현하는 한옥마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관광객에게 서울시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한국 옛날의 마을의 전통생활을 보여주고자 한다.

3. 다양한 문화행사로 보여주는 전통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한옥과 옛날식의 가구, 도구의 전시를 통해서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을 위해 다양한 전통문화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업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업체의 전통문화행사들도 한옥마을의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진행될 수 있다. 단오 때의 씨름 대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치 만들기 체험, 태권도를 비롯한 전통무용연출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남산골 한옥마을은 한옥과 옛날의 사물만 전시하는 정적인 박물관을 넘어서서 활기가 있는 전통문화 공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옥마을의 운영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기획행사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

한옥마을의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운영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주장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만들고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한옥과 가구에 대한 인식과 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전통”은 주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자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전통”이다.

[인터뷰8: 관리자Z씨, 남, 60대]

“(주말의 민속공연에 대해) 행사는 우리가 짜는 것이지. 지금의 도시는 다 개발되는데, 개발하면서 옛날의 것이 많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옛날의 농촌에서 쓰던 기구, 휴식할 때 놀던 놀이, 농악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다시 재현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인터뷰9: 관리자H씨, 남, 30대]

“(주말의 문화체험에 대해) 모든 기획이 참조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옛날의 특색이 있고 실행이 괜찮다면 설치하게 해요. (연구자: 관광객들의 의견도 참고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손님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죠. 왜 한옥마을에 찾아오는지, 와서 뭘 보고 싶은지 등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것에 외국관광객들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요. 여기 온 외국관광객들이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운영자들은 “옛날 조상들의 것”, “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선정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객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대표적인 전통문화가 한국의 옛날, 한국의 독특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남산골 한옥마을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곳이자 그러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조성한 관광지로서 운영업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운영업체가 진행했던 전통 머리핀 만들기, 비단 공예품 판매 등의 시도는 관광객의 인기를 얻지 못해서 취소된 경우였다. 즉,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는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요구와 현대 관광객들의 취향을 맞추는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통혼례 시연을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한옥마을의 운영자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전통문화를 고찰할 것이다.

1) 전통 혼례 시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오후에 민씨 가옥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시연은 남산골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의 하나로서, 사대부의 가옥에서 조선시대의 양반 혼례식을 올리는 장면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관광객의 호평을 받으며 남산골 개관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전통혼례는 처음에는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난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무료로 한국식 전통 혼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한옥마을에서 올리는 전통혼례는 유료로 바뀌었고, 이 외에 일요일에 시연의 형식으로 시민들의 신청에서 시연자를 뽑아서 관광객에게 조선시대 한국의 전통혼례 양상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목적이다.

조선시대에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초한 전통혼례의 절차는 중국의 가례와 유사하고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혼례¹⁵⁾는 주자가 정리한 사례¹⁶⁾를

15)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혼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날 한국 현대사회에서 “전통혼례”라고 올리는 혼례는 주로 조선시대의 유교식 혼례를 말한다.

중심으로 하여 변형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기(納期), 납폐(納幣), 대례(大禮), 우귀(于歸)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신랑집에서 청혼서(請婚書)를 보내고 신부집에서 허혼서(許婚書)를 보내는 의혼을 거쳐 납채로서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단자를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은 혼인날을 택일해서 보낸 다음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며 신랑은 신부집에서 가서 혼례의식을 행하며, 대례가 끝나고 나서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시집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전통혼례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대례는 전통혼례의 중심절차로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기 전에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고사(告祀)를 하는 초행(初行)을 거쳐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로 구성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올리는 전통혼례를 담당하는 K씨는_성균관대학교의 유림이 만든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시연되는 전통혼례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전통혼례는 의혼—대례—후례로 구성되며 대례부분에는 현사당례(見祠堂禮), 전안례, 교배례, 서천지례(誓天地禮), 서배우례(誓配偶禮), 합근례, 합방례라는 절차가 있으며, 실제 시연하는 전통혼례 부분은 이러한 대례의 일부만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안례: 신랑이 사선으로 얼굴을 가리어 등장하고, 안부로부터 기러기를 받아 전안상에 올리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한다. 신부의 어머니가 기러기를 맞이하여 신부가 나와서 신랑과 같이 대례청으로 옮긴다.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서 맞절하는 의식으로 수모의 도움에서 관세위에 손을 씻은 다음에 신부가 서쪽에 서서 4배를 하고 신랑이 동쪽에 있어 2배를 행한다.

서천지례: 천지신명에게 혼인을 고유하고 부부로 된 것을 서약하는 의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앉아서 술잔을 올리고 하늘에

16) 주자사례(朱子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이다.

맹서하고, 다시 아래로 하여 땅에 세 번에 나누어 부어 땅에 맹서한다.

서배우례: 서로 배우자가 된 것에 대한 서약으로서 신랑 신부가 술잔을 높이 올려 배우자에게 맹서하고 나서 잔의 술을 모두 마신 뒤 수모가 대례상에서 내리고 소탁에 놓는 밤(신랑), 대추(신부)에 손을 얹고 맹서한다.

합근례: 하나가 되는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뜻으로 신부가 서로 표주박으로 만드는 근배잔의 술을 나누어 마시고 두 수모가 손에 맞는 홍실과 청실을 대례창의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치고 나서 집례가 수모로부터 근배잔을 받고 합한다.

예필: 신랑과 신부는 관광객에게 감사의 절을 행하고 대례상 앞에 서 있어 집례가 성혼 성언문을 낭독하고 축사를 한다. 이로써 전통혼례를 종료한다.



그림 11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혼례 시연



그림12 대례상

이렇게 보면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혼례는 어느 정도 변형된 모습을 취하는데 담당자는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주자가례에 기초하여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라는 점을 설명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

[인터뷰10: 혼례담당자K씨, 여, 60대]

“우리가 시연하는 전통혼례는 한국 전형적인 전통혼례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반적인 혼례의식이에요. 한국의 전통혼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일치해요. 대례상의 세팅도 주자가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조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연하는 전통혼례도 옛날에 하던 것과 똑같지는 않겠죠.”

혼례의식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배치가 문헌 기록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의례 형식에서 완전히 옛날 그대로 하나하나의 절차를 재현하기보다는 관광지에서의 한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옛날 조선시대의 결혼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현대의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문화재와 같은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대중에게 전시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혼례의식은 전문가(유림)에 의해 짜여지고 전통예절 선생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정확성이 보장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혼례에서는 의식의 세세한 양식보다 담당자들이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통혼례의 의미와 가치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혼례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시연자가 일반인이지만 또 다른 시연자는 전문 인력으로서 흥기를 창출하는 집례 선생은 초청된 유림 선생이고 안내를 해주는 집사와 두 명의 수모는 모두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예절 선생이다. 전문 선생의 인도와 안내에 따라 전통혼례가 규범적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 혼례를 축하하는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축가를 부른 뒤 집사가 혼례의 진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한다. 집례의 창출에 따라서 시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사가 집례의 창출 내용과 시연자들의 행동을 현대식 한국말로 관광객에게 설명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필드노트1: 2013.4.28 전통혼례]

“사회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전통혼례에서 부여하는 전통적 의미를 모두 설명한다. 교배례에서 신부는 두 번을 한 번으로 쳐서 사배를 하는데 신랑은 한 번을 한번으로 쳐서 재배만 해서 이것은 유교적인 남존여비 사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음양의 수에 따라 음은 짝수이고 양은 홀수이어서 여자 사배하고 남자가 두배하고 남녀평등의 사상을 표현합니다’고 설명해준다. 또한 서 배우례에서 신랑은 밤 접시에, 신부는 대추 접시에 손을 얹고 배우자에게 맹서할 때 ‘신랑의 밤은 조상에 대한 효의 정신과 신부의 대추는 다산의 의미로써 조산송배에 대한 효와 대를 이어서 많은 자손을 갖고자 하는 뜻입니다’라고 해석하고, 근배례 마지막에 수모들이 홍실과 청실을 감아서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칠 때, ‘사계절 늘 푸르른 소나무는 남자의 표상이고 항상 곧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는 여자의 표상입니다. 그 위에 신랑의 홍색 실과 신부의 청색 실을 함께 감아 걸어서 이 또한 영원한 사랑하는 부부로서 자기 본분을 지킨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라고 한다.”

집사는 혼례식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와 물품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혼례가 진행되는 방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혼인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인생에서 중요한 통과 의례로 간주되었던 혼례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도 설명해준다. 혼례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로 되는 부부로서” 약속하고 맹서하고 인생의 새 단계로 들어서 가족의 책임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11: 집례 선생, 남, 60대]

“전통혼례가 오늘의 결혼식과 달라서 장엄하고 엄숙하게 진행해요. 요즘의 서양식 혼례가 하나의 이벤트이고 파티이면, 옛날의 혼례는 의례, 의식의 성격을 갖고 있죠. 관, 혼, 상, 제, 이 네 개는 한국인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의례예요. 나는 성인례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전통의례를 복원시키려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의 사회에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의례 정신과 가치관을 되살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이처럼 유림 선생이 주자가례에 기초해서 전통혼례 절차와 내용을 작성하고, 현장 담당자들이 그에 따라 지정한 행동을 진행하며 혼례식에 부여되는 전통적인 의미와 정신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전통혼례 시연은 정확하게 전통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적인 진행과정이 유림과 예절 선생이라는 권위적인 전통문화 전문가들의 지도와 안내에 의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전통적인 혼례의 본질적 의미가 재현되기 때문이다. 즉, 권위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전통혼례는 바로 진정한 전통혼례라는 것이다. 일반인인 신랑 신부 시연자의 소감으로부터 이렇게 진행된 전통혼례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12: 시연자1,2 커플, 20대]

“시연자1: 저희 11월에 결혼하거든요. 물론 서양식 혼례를 올릴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시연이기는 하지만 전통혼례가 어떤지 한번 체험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의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시연자2: 네, 좋은 기억이 될 거 같아요. 좀 긴장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행히 잘 했어요(웃음).

시연자1: 진짜 엄숙하고 경건하게 했어요. 특히 집사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는 '옛날 혼례에는 이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고, 진짜 그 시절 사람이 되서 결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13: 신랑 시연자, 20대]

"제가 시연을 신청한 이유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예요.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여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신청했어요. 하고 보니까 이런 경험도 재미있어요. 중간 중간에 하다가 '앗 이게 바로 전통 혼례구나'라 생각이 들곤 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절을 하려면 절하고 술을 따르려면 따르고 되게 장중해요."

이렇게, 전통혼례 시연이 표현하는 중심적인 의미에 비하면 다른 부분에서 관광을 위해 만들어낸 변화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실제 전통혼례의 시연 과정에서 맨 처음과 끝날 때에 국악단을 초빙하고 혼례를 축하하기 위한 축가를 부르는 것은 현대 서양식 혼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까다로운 혼례 절차의 진행의 과정에서 사회자가 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경쾌한 목소리로 혼례를 소개하고 축가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오락성을 담은 행동들도 많이 등장하여 활발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실제 혼례의 재현에서 현대적인 요소가 부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연된 혼례가 전통식 혼례를 제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2) 한옥 내부에서 열리는 행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역시 한옥의 특색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옥외와 옥내의 공간을 구분했을 때 한옥 안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한옥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전통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현되는 전통문화가 더욱 잘 감상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행사들인 전통의상 입어보기, 전통예절학교, 한밤의 풍류마당을 중심으로 한옥의 전통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통문화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설 문화체험에서 제일 많은 호응을 받는 행사는 “전통의상 입어보기”이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앉아서 글씨를 쓰거나 종이를 접는 것보다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옛날 사람의 이미지로 사진을 찍는 것을 더욱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의상 입어보기”를 담당하는 선생은 한 명만 있고 한번에 2~10명의 관광객을 응대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한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한복의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단체 사진을 찍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통 예절 선생이었던 담당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관광객들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피곤해 죽겠지만 한국문화를 선전하는 것을 해서 재미있다”고 말한다. 관광객에게 한복을 입혀주는 것은 보기에 간단하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 복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통적인 앉는 자세에 대해서도 교육시켜야 하는 과정이다. 맨 처음에 한옥에 들어온 관광객은 단지 색깔 혹은 디자인에 따라 마음에 드는 한복을 선택하는데, 담당자는 “앞자락과 어깨에 용 모양이 있어서 이것은 왕의 복장입니다” 혹은 “화려하고 긴 저고리는 궁중왕비의 옷이죠”라고 소개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기본적으로 한복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한옥에서 체험을 위한 한복은 여자 옷 중의 하나가 개량한복인 것 외에는 모두 전통식 한복이다. 개량한복의 경우는 지퍼가 있어서 입기가 편한 반면 전통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를 따로따로 입고 고름을 매어야 하며, 담당 선생은 치마를 고정하는 위치, 고름을 맺는 방향 등 한복을 입는 방법을 따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담당자는 이렇게 해야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 복식을 입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뷰14: 전통의상 입어보기 담당자, 여, 60대]

“꼭 그렇게 제대로 입어야 되냐고? 제대로 안 갖춰 입으면 안 예쁘잖아. 그리고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복 입고 싶으면 당연히 정통 한복을 입어줘야지. 옷도 그렇고 입는 방식도 그렇게 해야 한복의 제 맛이 나는 거지.”

한복은 전통적인 양식을 입고 제대로 입는 방법에 따라 입어야 한국 전통문화의 한 요소인 전통 복장을 진지하게 알려주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어줄 때에도 방석이나 침상에 앉는 관광객들에게 손을 놓은 위치나 다리의 자세를 제대로 취하도록 꼼꼼히 안내한다. 관광객들 또한 전통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행동도 옛날 사람처럼 해야 사진에서 더욱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기해 하면서도 담당자가 가르치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다. 담당자와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한복을 입고, 제대로 자세를 취해야 제대로 된 한국 전통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 전통의상 입어보기 현장



그림14 예절 학교

전통예절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운씨 가옥에서 진행하다가 5월부터 운씨 가옥이 한방 의료 체험 프로그램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승업 가옥으로 옮겨졌다. 예절 학교의 교육 내용에는 인사할 때의 예절과

다례(茶禮)가 포함된다. 예절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똑바로 앉아서 사람과 만날 때의 인사, 명절 때의 인사를 하나씩 배운다. 이어서 차를 마시는 예의범절인 다례를 배운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차를 따르고 몇 차례에 걸쳐 다양한 차와 그에 어울리는 전통한과를 맛본다. 그 중에 예절 선생님은 꼼꼼히 구체적인 예절의 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는데 특히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몸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예절의 정신을 강조한다.

[필드노트2: 2013.6.20 전통예절학교]

“손님이 남자가 큰 절을 올리는 동작은 양 손이 완전히 땅에 닿아야 하는지 아니면 땅에 가까워지는데 닿지 말아야 하는지를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선생님은 땅에 닿아야 한다고 대답하는데 이어서 인사의 예절은 동작의 정확성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행하는 예절은 전통의 바탕에서 현대사회에 맞춰서 적용된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화 시대예요. 예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다례 교육 때 다시 한 번 예절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한다. ‘다례가 여러 가지 ‘류(流)’가 있어요, 오늘 배우셨는데 다음에 다른 다례를 배워 보고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류’마다 그것이 공부하고 따르는 기원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다례를 배우는 것에서 몸가짐은 마시는 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분위기가 중요하죠.’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통 예절의 변화와, 가르치는 다례의 다른 “류”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언급은 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이 전통 예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전통이란 변화하는

것이고,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생각이 관광객을 접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전통 예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전통 예절 교육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맞고 정통성이 있는 예절 교육”의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교육하는 선생님은 말로 예절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정하고 우아한 말투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교육 내용의 정통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이처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전통예절학교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에게 전통 예절을 알려주는 장소로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재해석을 더하여 예절 교육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전통예절 교육에서는 예절의 형식보다 전통적 예절의 본질적 정신을 강조하며, 선생님이 예절을 갖춘 자신의 모습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전통 예절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처럼 예절 선생님은 변화하고 유파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전통 예절을 관광객에게 알려주는 데 비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예술 공연의 담당자는 “원형대로 고품질의 한국전통공연”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을 하는데 실제 공연은 전통정원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7월부터는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통문화공연이 야간공연으로 변모하여 전통가옥에 들어와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열리는 전통공연은 단지 장소와 시간만 바뀐 것이 아니고 “한밤의 풍류마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운영자는 이를 “진짜 좋은 문화공연이고 고품질의 공연”이라고 주장하고 소개한다.

우선, “한밤의 풍류마당”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따르면, “전통예술계의 원로 및 명인, 명창”들이 “아름다움이 깃든 품격 있는 무대”를 구성하여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야간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한국전통예술계에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함으로써 고급의

공연이라는 성격을 암시하며, 품격이 있다거나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품질의 공연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홍보를 통해 공연의 운영자는 공연을 보기 전부터 관광객에게 “풍류마당”이란 야간 공연이 고급의 한국전통예술 공연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출연자들은 모두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소개되는데 이는 국가가 부여한 인정으로서 공연의 내용과 수준이 진짜 한국의 전통예술을 대표할 수 있음을 관광객에게 보증해준다.



그림15 한밤의 풍류마당

실제 진행된 공연을 보면, “한밤의 풍류마당”은 매주 마다 각각의 주제를 만들어 다양한 방식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7월의 공연에는 부부가 함께 연주하는 금슬상화의 무대, 제자와 스승이 함께하는 사제지도의 무대, 명인들의 어우러짐, 차세대 명인들의 청출어람의 무대, 예술가의 길을 걷는 벗들의 봉우지교의 연주라는 주제들이 있고, 악기, 춤, 판소리를 어울리게 하여 종합적인 한국전통예술을 제공한다. 야간의 공연은 조명 등의 요인 때문에 가옥 내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관중들이 민씨 가옥의 마당에서 앉아서 볼 수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대청마루에 올라가서 공연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즐긴다.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공연을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한정하지만, 관광객의 참여에 대한 우려보다 운영자가 더욱 신경 쓰는 것은 공연의 “질”이다.

[인터뷰15: 관리자H씨, 남, 30대]

“소극장의 연극을 가봤어요? 풍류마당은 바로 소극장의 연출과 같아요. 낮에의 공연(‘눅’, ‘섬’공연)과 다른 느낌이고 아늑한 분위기예요. 이런 환경에서 진짜 좋은 공연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인터뷰16: 기획자M씨, 남, 40대]

“(매우 자랑스럽게) 내가 1월부터 계속 열심히 생각해왔어요, 더 원형적이고 품질 높은 것을 공연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뭔지를 정해야죠, 한국은 당연히 한옥, 한복, 한국 악기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나 연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중국의, 뭐더라, ‘인상산수’? 그런 큰 장면의 공연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어느 데도 그것을 따라가서 모방하고 막 하고 있어요. 안 되죠, 한국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꾸미지 않은 그대로 그 나라의 진정한 것이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소극장의 분위기, 한국적 특색이 있는 공연은 운영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장소와 주제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가 작지만 아늑하고 전통 맛이 나는 한옥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공연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진정한 한국 전통 예술”이라는 것은 한국의 상황과 어울리고 한옥, 한복, 한국 악기 등 전통 요소를 융합해서 나타나는 “한국적” 분위기가 가득한 전통공연으로 여겨지며, 한국전통예술의 원형과 품질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술 공연이라는 생각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운영자들은 언론 홍보와 실제 공연에서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예술 공연을 제공한다.

한옥 내부에서 설치되는 문화 프로그램들에서 “제대로”된 한복체험, 전통적 정신을 강요하는 예절교육, 문화재를 보여주는 야간공연은 모두 남산골 한옥마을의 운영자가 가진 진정한 한국 전통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전통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문화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운영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생각과 행동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영자가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전통문화의 요소는 “진정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복체험이 옛날의 모습과 방법을 계승하고 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예절교육에서 옛날의 정신, “풍류마당”은 원형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서 진정성이 있는 전통을 표현한다. 운영자의 개인적 경험, 교육 배경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통에 대한 서로 다른 재해석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운영자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며, 현대적인 한국이 아니고 옛날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전통”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은 공통되는 점이다.

4.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전통의 재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단지 원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구조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진정성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한옥마을 관광의 재현 과정에서 전통문화요소에 대한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한국 전통을 재현하고 보여주고자 한다.

한옥마을의 근무자는 관리사무소의 한옥관리자들, 한옥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배우들,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선생과 기획자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라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개인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측면의 진정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진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고 개인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같은 한국 사회에 속해 있으며 같은 한옥마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각자가 종사하는 일에 따라 개인적인 교육, 경험, 접근대상 등의 배경 요인들로 인해 자신의 인식을 조정해나간다.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소의 관리자들은 매주 화요일 휴관하는 날 외에 매일 12시간 정도 한옥마을에서 근무하고 식사하고 심지어 휴식까지 하루 종일 한옥마을 안에서 취한다. 그들은 마치 정주형 한옥마을의 주민들처럼 한옥마을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옥마을을 지키고 관리한다. 그들은 한옥마을에서 매일 긴 시간을 보내고 관리자의 신분으로서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우리의 것"이라는 주인인식을 가지며 한옥마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 위탁으로 한옥마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옥마을에 대해 한옥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재"라는 정의를 받아들여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사실의 기초에서 남산골의 한옥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진정한 한옥임을 받아들인다. 운영업체는 서울시와 맺는 종속관계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이는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라는 권력 대표자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한옥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문화재로서의 한옥에 대해 관광운영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한옥을 보호하고 보수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한옥을 잘 보호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관광의 맥락에서 한옥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당에 옛날의 도구, 화초장식을 꾸미거나 가옥 내부에 전통식 가구와 생활용품을 배치함으로써 문화재로 된 한옥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한옥에 맞추어 전통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옛날의 생활양상을 전시한다.

한옥의 관리자들에 비해 한옥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옥을 소개하는 안내원 역할을 담당하는 근무자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그만큼 애착이나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문적인 전통문화 관리 운영자가 아니라 올해 3월에 한옥이야기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관광객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극배우의 역할을 하도록 활용된 연출자이자 안내원이다. 근무기간 동안 남산골의 한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겨나는 것이 발견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옥마을의 관광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며 강한 진정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단순히 근무에 필요한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옥을 더욱 재미있고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한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운영 측에서 받은 자료 대부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한옥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시켜서 한옥의 진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는 모든 내용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한옥의 이미지를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행해지는 전통문화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한옥과 옛날의 사물만 전시하는 정적인 박물관이 아닌 종합적인 전통문화 공간으로 형성한다. 문화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각자가 담당하는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진정한 전통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며,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통혼례 시연은 유림이 작성하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유림과 전통예절 선생의 참여를 통해 혼례의 내용과 절차의 정확성과 정통성을 부각시킨다. 실제로는 시연된 혼례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기획자 및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인정을 받아 전통적인 혼례 양식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혼례 시연이다. 시연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전통의 혼례형식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 관광객들에게 전통적인 혼례의 의미, 조상의 결혼관을 알림으로써 진정한

전통혼례의 정신을 전달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전통의상 입어보기, 예절학교 교육, 한밤의 풍류마당 등의 문화 프로그램들에서도 모두 운영자들이 가진 진정한 한국 전통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고 이러한 인식에 의해 전통문화요소가 재현되는 것이다. 한복체험에서는 옛날의 한복 모습과 입기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절학교교육에서는 옛날 예절의 정신을 강조하며, “풍류마당”은 원형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의 연출을 통해 진정성이 있는 전통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자들은 객관적으로 전해오는 한옥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성 있는 전통문화의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 교육 배경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진정성의 인식은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다. 여기에서 진정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Bruner의 논의에서처럼 역사유산이 된 한옥 일본, 가구나 한복 등 신뢰성 있는 역사복제품, 정신은 유지하되 형식을 변화시킨 혼례나 예절교육, 정부에서 부여한 문화재라는 권위 등 다양한 층위로 나뉘어진다. 이에 따라서 전통에 대해 서로 다른 재해석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속해오는 전통의 기초 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이해하는 진정성의 의미를 한옥마을을 전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통해 느끼는 전통을 진정한 전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

IV. 진정성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과 전통의 수용

이제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의 운영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한옥을 전시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거행함으로써 “진정한 한국의 전통”을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접하게 되는 전통 요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Cohen(1988)에 의하면 관광객은 관광의 목적에 따라서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오락적(recreational), 이탈적(diversionary), 경험적(experiential), 실험적(experimental), 실존적(existential)인 관광객이 있다. 모든 관광객이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에 오기 때문에 편안함과 즐거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전통문화관광에서 관광객들이 접하는 전통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정한 전통인지의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판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림16 한옥을 구경하는 관광객



그림17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관광객

1. 한국인 관광객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견학 외에 주로 데이트를 하는 커플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가족들, 남산에 산책할 겸 한옥마을에 구경하러 오는 서울 시민들이다. 관광객들은 단순히 한옥을 보려고 찾아오기보다는 자연과 잘 어우러지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전통공간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의 정문에 들어설 때부터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접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정문 옆에 배치되어 있는 옛날 사람의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정원에서 전시되어 있는 벚짚으로 만든 옛날 농사도구와 생활용품을 체험하고 구경한 뒤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로 들어간다.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은 한옥, 옛날의 민속놀이, 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각각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다양한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대한 가지는 소감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으로서 한옥마을에서 전시하는 한국전통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향수 속의 한옥, 우리의 문화재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오기 전에 친구의 소개이나 정부의 홍보, 대중매체의 소개 등을 통해 한옥마을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즉, 다섯 채 조선시대 양식의 기와 가옥을 전시하며 조상들의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알고 찾아오는 것이다. 대문 옆의 배치도를 본 다음 관광객의 관람 순서는 바로 대문 오른 쪽에 있는 도편수 이승업 가옥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옥 내부의 진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옥의 주위를 둘러 걸으면서 한옥의 구조, 방의 배치, 가옥내외의 장식을 구경한다. 하지만 구경이라는 행위는 관광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옥의 모양을 새겨보고 꼼꼼히 가옥 내부의 가구 배치를 살펴보면 열심히 구경을 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대충대충 가옥의 겉모습을 한 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관광은 보통 한옥마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뒤에 공연을 보거나 마당에서 놀이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관광객들이 전시된 한옥과 주변의 도구, 가구를 즐겁게 구경하고 만지고 감상하는 것은 한편으로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과거 농촌의 생활양식에 대한 신기함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전통한옥에 대한 이미지를 한옥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에서 나타난 실제에 맞추어보면서 기억 속에 있는 한옥을 되새겨보고 검증한다.

[필드노트3: 2013.4.27 할머니의 사례]

김춘영 가옥에서 한옥이야기 안내원과 이야기 할 때 세 명의 할머니가 왔다. 그 중 한 명은 다른 두 명보다 매우 흥분되어 보인다. 웃음을 늘 띠고 있으며 다른 일행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대청마루에서 놓고 전시하는 옛날식인 물레를 가리키면서 “이것 우리 할머니 집에도 있었어”라고 큰 소리로 동반자에게 소개한다. 또한 대청마루를 기대하여 기계를 만지하고, 허공에서 손잡이를 잡는 듯이 손짓을 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동작을 만들고 이야기한다. “진짜 우리 집이랑 똑같아.” 이 말은 할머니가 김춘영 가옥을 관람하는 시간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다. 안채 방에서의 장식들을 보고 나서도, 사랑채의 책장, 문갑 등 가구의 배치를 보고 나서도 다 “우리 집의 것과 같다”는 감탄을 한다. 마당에서 있는 장독대에 올라가서 안에 진짜 된장이 있을까 하고 장독의 덮개를 열어서 실체가 휴만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도 여전히 “재미있다”고 말한다. 같이 오는 친구 분 할머니가 우리에게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강원도의 XX의 농촌에서 한옥에 살 적이 있어요. 오늘 와보니 모두 다 너무 익숙해요”라고 설명을 한다.

큰 기석 위에 나무로 만든 마루, 기둥으로 방과 마루를 하나하나의 칸으로 나누는 한옥은 각각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건축기법과 양상이 비슷해서 모두 한옥으로서 독특한 맛과 분위기를 낸다. 어렸을 때 살았던 한옥에 대한 기억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가옥배치와 사용하는 물건들에 의해 불러일으켜지고, 이로써 관람하는 대상물들은 모두 익숙하고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과거에 생활했던 한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렸을 때에 관한 좋은 추억을 눈앞에 나타난 한옥을 비롯한 사물과 관련시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억 속의 한옥과 현실에서의 한옥은 겹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의 할머니에게 한옥마을의 한옥과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전시된 정적인 관광대상을 넘어서 기억 속의 사물들을 되살리고 감정을 부여하는 특별한 것이 된다. 한옥은 할머니로 하여금 “우리 집과 똑 같다”는 인식을 생겨나게 하고 옛날의 생활모습이 기억 속에서 되살리게 한다.

다음 사례에서도 남산골의 한옥이 관광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뷰17: 중년 여자 관광객들1]

윤씨 가옥에서 두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창호, 문, 우물 등 사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안채에 와서 대청마루에 앉아 쉬었다. 소개로 관광객1의 시집이 직접 한옥에서 산다는 것을 알았다.

“관광객1: 문화유산인 전통가옥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찾아온 거예요. 한 번 와 봤는데 좋네요. 시집가서 부터 (한옥을) 그냥 자연스레 좋아하게 되었어요.

관광객2: 밥을 먹을 때도 입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한옥을) 취미로 좋아하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한옥을 좋아해요. 집에서도 자주 관련된 책도 보고 다른 전통 한옥마을도 많이 가봤어요.

관광객1: 한옥은 우리의 그리움이에요, 한국 사람의 향수. 한옥에 참 살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이렇게 큰 집에 못 살아요. 여기 앉아서 한옥을 느끼면 편하고 익숙해요.

(연구자: 어떤 익숙함이에요?)

관광객1: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요. 우리 한국의 것이고 한국의 냄새다 이런 거.

관광객2: 예를 들면, 고향에 돌아가면 마을 거리나 건물 뭐 그런 풍경에 대한 익숙함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이 두 관광객의 말에서 한옥은 “우리의 그리움, 한국인의 향수”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택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다. 한옥은 단지 가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으로 구성된 생활공간에서 옛날 한국인의 생활풍습, 조상들의 지혜와 숨씨를 포함하는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한옥이 자연과 조화롭고 어울리게 융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대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한국의 전통 한옥마을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아파트가 전통적인 한옥을 대체한다. 이런 경우에서 한옥에서 살았거나 한옥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그리워하는 관광객들이 서울 도시에서 옛날의 가옥과 생활양식을 전시하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향토와 전통에 대한 기대와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도시생활에서 벗어난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재현하는 옛날의 생활모습과 전통의 분위기에서 다시 한국적인 전통 가옥을 실감하고 되살린다. 이때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보는 한옥은 그들의 상상 속 한옥, 머릿속에 형성된 한옥의 이미지와 동일한 것이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한옥이 그들의 기억이나 상상 속의 한옥 이미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관광객들의 중요한 요건은 그들이 한옥마을에 오기 전에 한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감정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즉, 이런 관광객들은 한옥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한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배경에 맞추어서 눈앞에 보이는 한옥과의 공통점을 고려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의 한옥은 진정한 한옥을 대표한다.

한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관광객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한옥마을의 한옥을 “진정한 한옥”으로 인정해주는 관광객들이 모두 개인적인 감정을 한옥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한옥에서 생활하는 과거의 경험이나 한옥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는 관광객들 중에서도 한옥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관광객들은 추억 속의 한옥을 실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을 “문화재”라고 인식한다.

[인터뷰18: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한옥마을은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우리 문화유산을 배우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살았던 가옥은 이렇구나’ 하는걸 아이들이 느꼈으면 싶어요. (만든 활을 놓고 있는 남자아이: 재미있어요.) 여기가 서울 중심에 있어서 교통이 편하고 환경도 좋고 애들이 배우면서 놀 수 있어요.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무의식중에 옛 가옥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거든요.”

노는 동시에 아이를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한옥을 소개하는 경우에 아이에게 보여주는 한옥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역사유물의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의 옛날 건축양식, 조상의 생활모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전통에 대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된 한옥”은 “조상들이 옛날 살았던 가옥”과 동일시된다.

[인터뷰19: 보고서를 완성하려는 아이와 같이 온 어머니]

“애 숙제 때문에 왔어요. 여기 안내판을 보니 다 문화재로 지정된 거네요. 원래 뭐 삼각동, 제기동 다른 지역에 있던걸 여기로 옮겨 놓은 거구나.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앞에 안내판을 읽고 있다.)민속촌보다 이런 문화재 가옥들이 더 좋죠, 구체적인 역사배경도 있고, 진짜 옛날의 집이잖아요. 옮기긴 했지만 옛날 구조나 모습이랑 똑같네요.”

[인터뷰20: 등산 옷차림인 중년 남자]

“(‘여기의 한옥은 진짜 옛날의 한옥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럼! 한옥은 옮길 수 있거든! 옛날의 한옥은 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추고 결합해서 짓는 것이고, 나무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철거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 다시 조립하면 한옥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야. 여기 한옥은 다 옛날 살아오는 집들이 그대로 옮겨온 거지. 이런 나무들도 다 그때 살던 집에서 옮긴 나무들이야.”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지위가 부여된 남산골 한옥은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진짜 옛날의 집”, “옛날에 살았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인해 여기에서의 한옥은 국가 권력기관이 심사하고 역사 가치를 인정해준 가옥이라는 뜻을 가지며, 관광객에게 당연히 옛날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더불어 가옥마다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 최소의 지리적 위치와 이전복원의 경과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들의 진정성은 더욱 믿음직한 것이 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이 서울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을 “진짜 옛날의 가옥”으로 생각한다. 이곳 관광객들의 관광은 표면적으로 관광대상에 접근하여 알아보고 경험을 얻는 대중관광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탐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상징하는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관광대상물에 대해서 “문화재”라는 지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히 진정한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관념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생활에서 이미 구성되는 기존 관념으로서 심지어 실제 한옥을 보기 전에도 “문화재”로 된 남산골 한옥에 관한 소개나 홍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옥들은 민속자료 지정된 네 채 가옥과 지정되지 않은 윤씨 가옥으로 나뉘는데,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을 문화재로 인식하는 관광객들은 실제 관광행동에서 그것이 문화재인지를 구별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님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남산골의 한옥을 문화재로 인식하는 관광객들이 단지 “남산골의 한옥”이라는 명칭에다가 “문화재”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실재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재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구경되는 남산골의 한옥은 바로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전통양식의 한옥이고 윤씨 가옥이 신축된 사실을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다섯 한옥은 함께 문화재로 동일시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재”라는 생각에 따라 관람하는 동안 가옥의 구조를 감상하고 난간, 창문 등 특별히 정교한 장식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대표적인 한옥으로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념을 남기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연구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터뷰21: 중년 여자 관광객들2]

“관광객3: 중국 건축은 웅장하고 자연에서 두드러지고 일본은 작고 장식적인 부분이 특징이라면, 한국은 자연에 맞춰서 조화롭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옆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며) 이런 창호는, 예를 들어, 경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을 담아내는 거예요. 액자 알아요? 창으로 보면 바로 액자로 경치를 봐요. 여기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고 특별히

자연과 잘 어울리게 조성했어요. 마루에 앉아서 창밖의 남산을 보면 역시 한옥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어요.”

향수 속의 한옥이나 문화재로 생각되는 한옥으로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은 진정한 한옥으로 인식되고, 이는 한옥마을의 한옥을 한국의 전통 건축의 대표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진정한 전통에 있어서 관광객의 사랑과 자랑 등의 감정이 부여되는 것은 명확히 나타난다. 사물에 대한 감정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에 대해 직접 그리워하는 한옥이라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훌륭한 전통 건축이라는 칭찬 외에, 다른 한옥 혹은 다른 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진정한 한옥”으로서 한국의 전통미를 재현한다는 인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비교되는 대상은 같은 서울 시내에서 한옥이 모여 있는 곳, 북촌이다.

[인터뷰22: 어머니(60대)와 딸(30대)]

“딸: 북촌은 사람이 사는 한옥이지만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량으로 회사가 투자해서 지은 것들이에요. 개량 한옥이죠. 여기는 달라요. 조선시대 말에 양반들이 살아왔던 집들을 그대로 옮겼던 거구요.

어머니: 옛날부터 남겨온 집들이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쪽(북촌)은 장사하려고 지었고, 여기는 명품, 명품! (웃음)”

[인터뷰23: 젊은 남자 관광객]

“북촌에 한옥도 있잖아요. 원래 북촌한옥에 가려고 했는데 많이 가봐서 재미없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괜찮더라고요. 가옥들이 전부 시 소속의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고... 혹시 북촌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비해 여긴 보기에 아주 새롭게 보여요. 여기가

더 전통적이고,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그리고 북촌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남촌과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대비되는 두 군데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두 지역의 의미도 변모해온다. 조선시대 반촌 중 빈촌과 부촌의 대비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거주지와 조선인의 거주지로 되었고 이제는 서울시내에 두 곳 밖에 없는 한옥마을 되었다. 남산골은 전통적인 한옥으로 관광화 되는 반면 북촌한옥은 여전히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량된 신식 한옥이다.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의 남산골과 북촌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같은 전통을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측면을 보자면, 남산골 한옥은 한편으로 옛날의 양식 그대로 나타나는 한옥이 경치와 더불어 전통적인 한옥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부여한 “문화재”라는 지위에 의해 한국의 더욱 진정한 한옥을 대표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을 남기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호평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시되는 “진정한 한옥”에 대해 관광객들이 그것을 “옛날의 집”, “문화재로 된 가옥”을 감상하고 칭찬하는 것 말고도 관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마루에 앉아서 쉬고 난 뒤에 스스로 마루에 남은 흔적이나 쓰레기를 정리해 가져가거나 아이에게 신발을 벗어야 가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육시키는 것, 한옥 주거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옥에서 움직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권고하는 것 등은 운영 측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한옥을 관람하면서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들이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의 교육이나 사상을 통해 진정한 한국의 전통한옥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며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 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익힌 습관이나 인식이 남산골 한옥에 대한 관광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관광화 되는 대상이지만 그것을 한국 전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인식체제에서 훼손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을 보호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

2) 전통의 재현에 대한 인정

그러나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에 대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서 모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진정한 가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찾아오기 전에 한옥에 대한 소개나 안내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남산골의 한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다음은 그러한 관광객의 사례이다.

[인터뷰24: 젊은 커플]

“남자: 데이트 코스가 좋아서 오는데요. 용인에 있는 민속촌도 많이 가봐서 한옥에 대해 뭐 안채, 사랑채 이렇게 대충 알아요. 오기 전에 가옥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더니 실내에도 다 잘 장식되어 있네요. 가구도 있고, 세팅 잘 되어 있네요.

여자: 방에서 이불, 가구들 다 있어서 배치도 잘 보이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집일 줄 알았는데 되게 새 것 처럼 보여요.

남자: 새 거, 다 새 거지. (웃음) 이 벽이 이런 거.....(웃으면서 벽을 신선하게 마구 칠하는 흔적을 가리키고)

여자: 딱 진짜 옛날의 마을에 온 느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와서는 가옥의 전시만 보는 거죠. 그리고 도시 속에 있어서 그런지 주변도 다 고층 빌딩들이어서, 현대 건축의 환경 속에서 관광지가 된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도 옛날의

생활양식은 잘 전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잔돌들도 짝 있고, 잘 꾸민 것 같아요.”

한옥 자체보다 데이트 분위기가 좋아서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은 한옥마을이 만들어낸 전통의 공간에서 얻는 감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 공간에서 관광대상으로 되어 있는 한옥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의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인 고층건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새로운 재질로 된 가옥들 등의 요소로 인해 진정 옛날로부터 보존하고 남아있는 한옥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

[인터뷰25: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

“아주 새롭게 보여요. 담벼락이나 돌의 색깔로 보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가옥인 거 같아요. 새로 지은 거지만 상관없어요. 전통 분위기도 나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 편하게 구경도 하고 아이들도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옛날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은 무슨 방인지 뭐 이런 것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좋네요.”

평일의 남산골 한옥마을은 주말만큼의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옛날식의 한옥을 전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된다. 위 사례들처럼 한옥을 구경하러 오는 것보다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고, 한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는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관광지로서 가지는 전통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쉽게 관찰하고 인식하게 된다. 한옥마을의 한옥들은 원 지역에서 남산골로 이전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옥의 나무를 교체하고 담장을 다시 칠하며 많은 부분을 재건할 정도로 새롭게 지었다. 이렇게 된 가옥은 옛날의 구조와 똑같고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재질로만 보면 새 건물 같을 수도 있고, 가옥의 배경과 소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관광객은 새로 지은 가옥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옛날의 진짜 가옥이

아닌 새로 지은 한옥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관광객에게도 남산골 한옥마을은 옛날의 건축양식과 생활양상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명확하게 “관광지”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통의 진정성에 대해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어느 정도는 남산골의 운영진 측에서 조성하는 한옥마을이 일반의 대중 관광객 인식 속의 옛날 마을의 이미지와 들어맞도록 의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객의 시각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은 “새 거”이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옛날을 재현하고 전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때의 남산골 한옥마을은 하나의 민속마을 형의 테마공원이고, “모형문화”의 성격을 가진다. 옛날의 한옥 양식에 따라 만든 전통의 복제물이지만 자신의 인식에서 “전통한옥”에 맞고 그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는 것이라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산골의 한옥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여기 전시되는 한옥들은 진정한 전통 한옥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옥의 특질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터뷰26: 중년 여성 관광객]

“서울 벗어나서 전주 그런 데에 가보면 산 밑에 한옥들이 짝 있고, 앞에 바로 즐줄 흐르는 시냇물 있고.. 그거야 말로 진정한 한옥이죠..... 여기는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막아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한옥은 해에 따라서 햇빛이 다르게 비춰지니까 다양한 경치를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도 서울시내 이런 곳이 있어서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한옥의 전통미를 재현했어요. (창호를 만지며) 이런 창문은 다 한지로 발라져서 아침에 별이 잘 들어서 방에서 자면 기분이 좋겠어요.”

“진정한 한옥”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대 한국인이 현대 생활에서 탈피하여 가지게 되는 향토에 대한 그리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속에 존재하는 향수는 단순히 옛날의 건축을 대표하는 한옥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있는 한옥에서 유유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옛날의 생활양식에 대한 그리움이다. 서울 도시 중심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은 주변 고층 건물의 둘러싸여 있는 환경으로 인해 완전히 현대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주의 한옥마을보다 옛날의 한국 생활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더라도 관광객의 인식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은 여전히 도시에서 한옥을 보존하는 곳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된다. “전통한옥”으로서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남산골 한옥은 충분히 향수를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통한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한옥뿐만 아니라 남산골 한옥마을의 문화행사들을 보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준다. 문화체험, 혼례시연, 전통공연 혹은 전통놀이들 각자 다양한 방면에서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전통혼례시연은 제일 인기가 많은 행사로서 주말에 시연을 진행할 때 마당에는 관광객들이 가득 찬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혼례식에 사진을 찍고 잠시만 있다가 가는 데 비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혼례를 보면서 더 긴 시간을 체류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은 혼례를 끝까지 보고 앉을 자리가 없어도 40분 동안 서 있으면서 전통혼례시연을 관람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집례의 설명이 어렵지만 보고 난 관광객들이 혼례에 대한 의미를 더욱 잘 알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인터뷰27: 20대 혼례관람객1, 2]

“관광객1: 예전에 어머니 결혼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는 몰라요,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네요.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관광객2: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대추, 밤 이런 것을 쓰는 이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상님을 존경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어떻게 혼례를 진행했는지 보여주고 그 의미도 알려줘서 무척 의미있는 경험이네요.

관광객1: 현대사회에서도 전통혼례로 식을 올리면 이혼율이 좀 더 낮지 않을까 싶어요. 전통혼례가 좀 더 혼례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거 같거든요.”

관광객들은 시연되는 전통혼례에 대해 “쇼”처럼 무대에서 연출하는 성격으로 보지 않고 전통 양식의 혼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시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28: 40대 혼례관람객]

“전에 용인 민속촌에서도 한번 전통혼례를 봤어요. 그때는 가마를 타는 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장소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 많이 간소한 것 같아요..... (진짜 옛날의 혼례와 똑같은지에 대해) 옛날 사람이 진행했던 혼례보다 아무래도 현대로 와서는 많이 간소화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현대의 혼례는 이벤트예요, 전통혼례는 의례, 의식이고 절차에 따라 의미 있게 하나하나 행해요. 말이 어려운데 설명해줘서 이해되네요. 다만 신랑 신부가 힘들죠. (웃음)”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가 바로 옛날 사람들이 진행했던 전통혼례의 양식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은 유교적인 혼례절차가 진행되고 의식의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남산골의 운영자가 기획한 혼례의 전통성을 수용한다. 보통 관광객들은 전통적

혼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아들인 전통혼례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남산골 전통혼례가 진행되는 모습을 판단한다.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남산골의 전통혼례 시연이 관광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혼례 시연의 진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운영 측이 전통혼례시연에서 유교 의례로서 혼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통혼례의 정신과 본질을 강조하는 기획에 따라 관광객들도 전통적인 혼례의 진행절차보다 더 중요한 혼례의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시연되는 전통혼례의 절차가 정확한지, 진짜 <주자가례>에 따라 하는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가옥, 복장, 시설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통의 분위기에서 혼례의 전통적 의미를 본질적으로 체험하고 진정성이 있는 관람체험을 얻는 것이다.

전통혼례시연을 구경하고 나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자기의 혼례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부부가 한국적인 결혼을 경험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시연을 보고 나서 이곳에 전통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은 남산골에서 전통혼례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운영자들이 보여주는 전통혼례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인정해준다.

[인터뷰29: 젊은 여자 혼례관람객]

“전통혼례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결혼은 전통혼례나 서양식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는데 오늘 보고 나니 전통혼례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절차가 많고 좀 힘들 것 같지만 재미있게 보여요. 의식의 의미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주시니까 결혼식으로서 혼례의 의미가 더 있는 거 같아요.”

[인터뷰30: 중년 커플 혼례예약 상담자]

“여자: 20대 때 결혼식을 했지만 그 뒤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고.....그때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이제 30년 지나서

이런 전통혼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이어서.....한국적인 전통혼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지난번에 와서 혼례시연을 봤어요. 신랑신부가 전통 옷을 입고 멋있었어요.

여자: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도 그런 옷 입고 혼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웃음). 그리고 아이도 이제 20대니까 전통혼례 보여주고 싶네요.

(연구자: 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할 거예요?)

여자: 앞에 한국의 집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더 나아요. 거기는 건물 안에서 하는 거고 식당 하나 뿐이지만, 여기 한옥도 있고 절은 어떻게 하고, 술잔은 어떻게 올리고 하나하나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혼례가 복원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남산골 한옥마을도 전통혼례를 올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관광객의 신분으로 한옥마을에서의 전통혼례를 보고 나서 여기에서 자신의 혼례도 올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남산골의 전통혼례는 혼례로서 더 의미가 있거나 한국적인 전통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남산골 전통혼례의 진행 방식은 관광객의 인식에서 한국의 전통적 혼례를 제대로 재현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나아가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혼례를 올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남산골 한옥마을이 제공하는 전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옥마을에서 올리는 전통혼례가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혼례를 올리는 신랑과 신부도 관광객의 눈에는 연출되는 전통혼례의 일부로 여겨질 것이다.

전통혼례 외에 한풍문화마실, 한밤의 풍류마당, 전통놀이 만들기 등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

기획된 문화 프로그램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보고 싶은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재미있게 놀게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기획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들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관광지로서 그것을 본 한국인 관광객들은 남산골 운영자들이 만든 이 전통문화공간에 나타나는 전통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힌다. 한옥을 문화재로 보지 않는 관광객들도 과거의 전통양식에 따라 조성된 한옥마을에서 조상들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제대로 재현한다고 인정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은 관광지로서의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운영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관광이란 목적을 위해 재구성되는 전통이지만, 이러한 전통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전통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고 한국적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유교적 혼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전통혼례시연,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야간공연 등 행사에 대해서도 한국의 고유한 문화 내용을 전시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전통의 재현으로 여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한국인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관광대상을 받아들이는 관광객의 역할을 넘어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중국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에 비하여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에 방문하게 된다. 한옥마을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한옥,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옥마을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평균 매일 방문인원수는 50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약 70 퍼센트의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여기 말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중국인을 의미하는데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다. 이러한 관광객들은 대부분 남산골 한옥마을에 처음 오는 것이고 한옥, 전통혼례 등 한국문화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만 보았을 뿐이다. 관광 가이드는 이러한 단체 관광객이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이드 안내 내용1: 가이드1, 화교]

“(민씨가옥에서) 다들 이리 오세요. 이 가옥은 옛날 조선 때 부마의 집이에요. 주방에 와 보세요. 벽에서 걸려 있는 작은 탁자를 보셨어요? 그것은 옛날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쓰는 밥상이에요. 밥 준비가 다 되면 밥상에 놓고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가져가요. 남자들 다 먹고 나서야 여자들이 남은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이에요, 중국 옛날 때와 똑같아요.....

(사랑채 앞에 마당에서 바닥에 기와로 만든 팔자형 모양) 여러분, 이것은 뭘 하는 것인지 맞춰보세요. 이것은 옛날 귀족 집에서 남자애들이 걸음을 배우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앗~~) (가이드가 뒷짐을 지고 팔자의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걸으면서) 옛날의 귀족들이 바로 이렇게 걸거든요. (관광객들이 웃으면서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팔자 위에서 걷는다.)”

[가이드 안내내용2: 가이드2, 화교/조선족]

민씨 가옥에서 주방부터 안채, 사랑채, 별당채의 순서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별당채를 지나 뒤 마당에 온다.) 이쪽은 뒤뜰이에요. 이견 화단이고요, 장독대가 있고, 한국사람 좋아하는 된장, 간장,

고추장들 이런 장독에서 발효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 쪽에 고깔 모양의 움막이 뭔지 아시는 분? 오늘날의 냉장고처럼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겨울에 김치독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들 보시는 대로 한국 사람의 마당에서 나무와 화초를 많이 심어요.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초가 없다면 집이라고 할 수 없죠.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중국의 ‘천인합일(天人合一)’라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단체 중국인 관광객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오기 전에 한옥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이드의 설명은 그들의 주된 정보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가이드들은 안내를 해줄 때 남산골 한옥의 역사적 배경보다 일반적인 한옥의 전형으로서 한옥의 구조, 기능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옥에 대한 소개에서 확장하여 앞 사례에서와 같이 “남존여비”, “자연과 사람은 어울림”과 같은 한국 사상적 배경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 가이드들은 남산골의 전속 가이드가 아니라 여행사와 같이 온 일반적인 가이드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설명은 가이드 자격증을 딸 때 배우는 지식에 기초해서 개인적인 해석을 곁들인 것이다. 그래서 같은 관광대상에 대해서도 가이드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관광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씨 가옥은 문화재 조사를 거쳐 이름을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자신이 가진 지식대로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더불어 단체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준비하는 팸플릿, 안내판보다 가이드에 의존하여 그 사람의 설명만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정확하지 않는 설명은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 수도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가이드들은 모두 중국말에 능숙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중국어가 모국어가 되는 화교나 조선족 가이드와 중국말 할 수

있는 한국인 가이드로 구분된다. 두 종류의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다르게 행동한다.

[필드노트4: 2013.6.10 가이드3, 한국인]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민씨가옥으로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몇 마디로 소개한 뒤 30분 자유 활동 시간을 주고 단체를 해산한다. 몇 명 관광객이 다른 가옥을 가보지 않고 가이드와 다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이드: “(다른 가옥에) 왜 안 가세요?” 관광객: “한옥들 다 비슷하네요.” 가이드: “우리 한국인이 보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다 전통문화의 대표예요.” 가이드의 말을 듣고 관광객들이 민씨 가옥 앞에 마당에서 사진 몇 장을 찍고 문으로 나간다. 이 때 다른 한 아저씨가 가이드를 찾아온다. “여기 <대장금>을 찍은 곳이에요?” “네네...” 왜 이렇게 알려주는지를 물어보았더니 “홍보하기 위해 일정에서 이렇게 썼어요”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가이드가 어떤 국적인지에 따라 관광객들 사이에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화교나 조선족 가이드가 모두 중국인이고 가이드들도 중국인일 경우에 관광객들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같은 집단에 속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관광객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재미있게 소개하고 설명 가운데 “우리 중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한국의 문화에 대비되는 “우리 중국”의 우월감을 강조한다. 반대로 한국인 가이드의 경우에는 일단 언어에 있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가이드만큼 잘 묘사하거나 소개하지 못하고, 관광객과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관광객에게 말할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경우의 가이드에서 관광객들이 받아들이는 한옥마을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위 사례에서 여행사가 관광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대장금>을 이용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잘못 소개하는 요소도 발견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가지게 되는 한국 전통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단체 관광객 외에 개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는데 그들은 오기 전에 여행정보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추천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받아들이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는 한편으로 가이드를 통해서 듣는 소개이고, 다른 한편은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얻은 개인적,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근원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실감하는 한국 전통에 대한 인식을 구성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의 고옥(古屋)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개 한옥마을의 한옥이 서울시 지정되는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가이드의 설명이나 개인적인 지식을 통해서 관람되는 한옥들이 옛날부터 전해지는 고 건축이라고 판단하는 관광객도 있다.

[인터뷰31: 수학으로 온 홍콩대학생]

“가이드 선생님이 여기의 집들이 다 옛날의 집을 보존해 온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잘 보존하네요. 홍콩에는 이런 옛날의 가옥이 없어요. 대륙에서 보는 것도 많이 낡아 보이고 이렇게 잘 보존하지 못 해요. 그리고 한옥은 조용하고 편한 느낌이 나요.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터뷰32: 대만에서 온 교환학생1,2]

“학생1: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돌아보고 한옥의 구조, 내부의 장식, 이런 것을 구경해요. 더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학생2: 제가 전에 한 번 더 와봤어요. 한국의 전통 민가의 전형으로 뽑을 수 있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학생1: 자료를 보니 다른 데로부터 이전 복원된 것이라요. 보기는 진짜 옛집이에요. 새로 만든 것 아니에요.”

위에 세 사례는 모두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단체 관광객들은 가이드를 신뢰하고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남산골의 한옥이 문화재로서 옛날부터 보존되어 온 진짜 옛집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개인 관광객의 경우는 남산골 한옥마을 찾아오기 전에 인터넷이나 친구들의 추천으로 대강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남산골의 한옥이 이전하고 복원된 옛날의 한옥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있어서 가이드의 설명이나 자료로 얻은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견해에 따라 한옥을 관람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인터뷰33: 중국인 할아버지]

“전에 한번 제주도의 민속촌에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쪽보다 여기의 가옥들은 더 좋아 보이네,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여요. 그러지? 기둥 나무의 칠을 봐봐, 다 동유(桐油)이야, 요새 건물에서 칠을 표면에서만 한 번 칠하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진짜 옛날의 집말이야. 우리 집 옆에 바로 이런 고옥이 있어. 사실은 중국의 고옥은 한국과 모양이 비슷하지, 그런데 한국보다 많이 크지, 조각 문양 이런 것 더 예쁘지.”

[인터뷰34: 중국인 중년 여성 관광객]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인 가이드가 남산골 한옥마을의 정문에서 구체적인 소개 없이 1시간 자유 시간을 주고 나갔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이드에 대해 불평하면서 돌아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옛날의 건물들을 잘 유지하는 것 한국이 잘 하는 것 같아요. 문물을 보존하는 가치도 있고 한국 옛날의 민가를 보여주고 과거의 생활양식도 전시해요. (왜 여기의 한옥을 옛날의 건물로 생각하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나무의 낡은 정도, 장식 등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중국의 사합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국의 고 건축들은 파괴를 많이 당했어요. 정부가 잘 유지 못하는데 한국은 이 방면에서 잘 했어요.”

중국과 한국은 역사에서 서로 빈번한 교류 왕래로 전통문화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처음 한옥을 보더라도 익숙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중국의 고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아서 비슷하게 보이는 한옥에 대해 가이드가 없어도 개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한국의 고 건축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옥이 많은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한옥을 보고 한국의 전통가옥을 감상하고 감탄하는 것 대신에 본국에 있는 고 건축과 비슷하게 생겨서 서로 비교하고 오히려 중국의 크고 화려한 고 건축에 대한 자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많은 중국의 고옥들이 더욱 좋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한국보다 보존을 잘 하지 못 하는 사실을 애석하게 여긴다.

2) 한국의 전통 분위기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한국을 좋아해서 여행을 온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광객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짜 옛날의 전통한옥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적 독특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한옥뿐만 아니라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등을 체험하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감상한다.

[인터뷰35: 한복을 입는 중국인 관광객1,2]

“관광객1: 이번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평일에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그래서 이번 휴일 때 친구랑 같이 여행을 왔어요. 밖에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에 구경하라’는 광고판을 봐서 그냥 빌려 입었어요. 더욱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웃음)

관광객2: 우리는 한옥 구조, 기능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돌아보고 한옥의 배경에서 한복 사진을 찍으면 한국적인 매력이 나요. (관광객1: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경복궁이 궁궐의 대표라고 한다면 여기가 한국민가의 대표라고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와보니 괜찮아요.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대신들의 집과 똑같잖아요.”

(인터뷰를 끝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두 관광객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요청한다.)

[인터뷰36: 20대 딸과 50대 어머니]

“딸: 이번에는 엄마를 데리고 자유롭게 여행 온 것이니까 준비를 엄청나게 잘 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 관광지로 전통한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바깥에서 다 봤어요.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아요.

어머니: 대장금이 여기서 찍었다면서요? (연구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그런데 가옥들이 잘 보존된 상태네요, 새로 옛날 것을 모조하는 건가요?

딸: 다른 곳으로 옮겨 온 거예요, 배치랑 구조랑 옛날 양식과 똑같은 거겠죠.

어머니: 들어오니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편하고 좋아요. 상해의 그 옛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꼭 차 있어요.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 집들이 잘 보이고 한국의 특색이 잘 나타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통해서 굳이 한국의 전통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관광객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문화를 감상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 역시 이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인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현실에서의 한국 문화를 실감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옥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는 주된 방식은 한국의 드라마이고, 한옥마을에 와서 실제 한옥을 보면 그러한 드라마에서의 한옥 이미지와 대비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받아들인 한옥의 이미지는 한옥이 가져야 할 본래의 모습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한옥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면 한옥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보기에 한국 드라마에서의 한옥과 같이 생긴 남산골 한옥은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전통가옥과 일치된다고 여긴다.

또한 한복을 입고 관광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듯, 관광객은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한옥마을에 들어와서 자신이 몸소 이 환경에 맞추어 한국적인 복장을 입음으로써 한국적인 매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은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분위기를 인정하고,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한국의 전통은 한복을 입는 등 더욱 전통의 맛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이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는 이미지가 또 다른 관광객들이 보기에 한옥마을을 이루는 하나의 풍경에 속하게 됨으로써 한국적인 전통의 분위기를 증가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한옥을 통해 조성되는 한국의 전통적 분위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제대로 한국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한다. 한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체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37: 전통혼례를 관람한 중국인 관광객]

“아까 진행했던 전통혼례는 조선시대의 혼례라고 하지만 옛날의 한국 전국의 혼례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영토가 커서 지역마다 풍속과 습관이 서로 다르고 혼례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은 한 민족의 나라이고 혼례가 아마 다 이 형식으로 하는 거죠? 관광지라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량이 당연히 있겠죠, 연출하는 성격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거랑 큰 차이가 없겠죠. 어느 정도 한국 혼례의 특징을 다 보여주었어요.”

[전통혼례38: 전통의상 입어보기 중국인 체험자]

“중국도 옛날 집, 옛날 정원을 관광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은 관광객에게 높은 참여도를 끌어내는 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체험을 해야 더욱 한국적인 전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옥에서 한복을 입으면 더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이 더욱 유명해지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면 좋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야 돼요. 관광지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괜찮아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다만 전통문화의 관광장소로 조성한다면 본질적으로 한국적 전통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지켜야 해요.”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은 단순한 전통문화의 관광지로 간주되면서 관광을 위해서 전통을 활용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도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에서 이렇게 관광화된 한국문화체험은 여전히 진정한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준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경우와 비교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대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관광을 위해 재구성하고 변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전통의 중심요소를 변화시키지 않고, 즉 한국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진정한 한국전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 관광객들의 인식과 수용의 형성

관광객은 관광지에 와서 진정한 관광경험을 추구하면서도 현지주민의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해당된 사회,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기대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실제로 거주중인 주민이 없는 관광용 한옥마을로서 "무대적인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야외박물관 형식인 "모형문화"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 사회, 문화에 소속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과 외부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재현된 전통에 대해 다르게 본다.

한국인 관광객은 관광객의 신분이 있기도 하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지주민이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 대중매체, 국가선전, 실제 겪는 직접적인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접근을 통해 한국의 전통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전통은 학자, 전문가, 정부 등 관련자들이 부여한 의미와 가치에 의해 규정해 놓은 전통이다. 오늘의 현대화된 한국사회에 비하여 과거적인 것, 옛것, 조상들이 살았던 것은 전통의 의미를 포괄하며, 한국인으로서 기 맥이 상통하고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옥, 전통혼례, 전통예술 공연 등 전통문화요소는 남산골 한옥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경험하고 알 수 있다. 즉, 남산골 한옥마을에 가기 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에 대한 관념을 이미 형성했으며 그러한 기대와 욕구에 기초하여 한옥마을이라는 실제 공간에서 전통에 대한 인식을 투사하고 상징기호를 경험하거나 발견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대로 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전통에 대해 다양한 소감을 가진다. 일부 관광객은 남산골의 한옥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는 한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 관광 행위는 문화유산의 탐방의 형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조상들이 전해온 우수한 전통한옥을 감상하고 배우는 과정이 된다. 사회적 교육과 경험으로 구성되는 문화재라면 인정을 받는 진정한 전통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개인 과거의 경험 중 한옥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거나 한옥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관광객에게 남산골에 보존되어 오는 한옥은 그들의 향수적 복고적인 기대를 만족시킴으로서 기존 인식에서 형성되는 진정한 한옥의 이미지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기대와 감정을 부여하지 않고 여가 또는 휴식으로 찾아온 일반 관광객에게도 남산골 한옥마을의 한옥과 전통문화 행사들은 "조상의 생활양상을 전시하"고 "한국의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한국인 관광객으로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체험하는 관광경험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경험으로 인정되는 부분적인 진정성(partial authenticity)이다(Cohen, 1988). 이러한 진정성은 객관적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체계에서 형성되는 전통에 관한 이미지와 기대를 남산골 한옥마을에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같은 사회에 속한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자가 재현하는 전통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으로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에서의 전통문화에게 진정성을 부여하며, 실제 관광 가운데 전통문화의 재현물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고 아끼는 행위도 나타난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동질감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은 호기심을 가지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와서 신기한 것을 체험하고 낯선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 여행 오기 전에 한국과 관한 드라마, 영화, 인터넷

과 같은 대중매체 및 관광업체, 정부 언론 등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 중에 외국인 관광객 자국의 사회가 형성하는 관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국정부가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 특히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한국인과 같은 익숙함이 없다. 한국에 와서 하는 관광은 현대관광과 전통문화관광을 함께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시대적인 차이보다 한국적, 한국 특유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원한다. 그들에게 한국의 특색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관광대상물은 진정한 한국문화로 간주된다.

한국의 관광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잘 모르는 상태로 찾아온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단지 이곳을 한국의 전통한옥을 전시하는 공원으로 인식하거나 전혀 모르고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서 오는 관광객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팸플릿, 안내판을 이용하거나 가이드의 설명과 소개로 한옥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남산골 한옥의 역사배경을 설명해주는 활자로 된 안내 방식보다 가이드의 설명은 관광객에게 한옥의 구조,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유일하고 유효적인 안내가 된다. 그러나 가이드가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문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대한 설명에 개인적인 해석을 들어가고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관광객의 한옥마을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관광객은 자국에서 구성되는 한옥, 한복, 한국의 전통혼례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체험을 통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공한 전통문화요소가 이전에 한국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형성한 한국전통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우에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있고 전통문화에서 비슷한 점과 공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도 중국에서 쌓은 사회적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중국 문화를 대비시켜 한옥마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남산골의 한옥은 중국의 고 건축과 비슷하게 나타나서 한국의 고옥, 옛집이라는 인식을 부여한다. 하지만 문화에서의 익숙함

으로 인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는 한국적인 특징을 전달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 전통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요컨대, 관광객으로서 전통문화관광에 대한 진정성 인식은 관광객들의 사회적 및 개인적 배경을 기초로 형성한다. 그중에서도 같은 사회에 속하는 관광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사회적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광공간에서 관광객들은 운영자가 조정하는 전통을 체험하고 실감하며 이러한 전통은 그들의 사회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전통에 관한 인식에 의해 평가되고 판단된다. 관광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진정성의 기호와 상징을 투사하는 과정이다. 전통문화관광에서 진정성이 있는 전통으로 일단 인정되고 나면 이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관광행위와 동시에 관광대상이 된 전통을 아끼고 보호하는 행위도 나타난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관광에서 관광운영자가 전통을 재현하거나 관광객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인식의 작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화유산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통관광에는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객관적인 사실 혹은 실물로서의 전통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정성이 있고, 한편으로 관광객들이 오락을 즐기고 자아의 발견과 이해를 추구하는 실존적인 진정성도 있는데, 본 논문은 관광행위의 관계자 입장에서 그들이 가진 전통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 즉 상징적인 진정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역사적인 지리 공간 남촌에서 조성되었다. 이 공간은 조선시대 도성에서 부촌이었던 북촌과 대비되어 가난한 양반들이 사는 지역으로 유명했다. 일본강점기에 남촌은 일본인의 전용 주거지로 변모하고, 개방 후 도시화 발전과정에 따라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이 고층빌딩, 현대시설이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 90년대 서울시정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이곳에 전통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민속자료로 된 한옥 다섯 채를 남산골로 옮겨서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한옥마을에 "남산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역공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활용함으로써 전통관광지로서의 한옥마을에서 전통 이미지가 창출되기 위한 바탕을 만들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 소속이고 위탁관리제로 운영되므로 서울시와 운영업체 두 주체가 함께 이를 전통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한옥마을에서의 한옥은 시 민속자료로서 문화재 보호를 받는 한편으로 활성화 전략을 통해 주변의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며 옛날의 생활양상을

보여주도록 꾸며서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남산골”의 역사성을 활용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한옥의 문화재적 성격과 남산골의 역사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옛날의 역사생활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 한옥마을의 운영자들은 한옥들이 조성하는 옛날의 분위기에 맞추어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종합적인 전통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운영자로서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들 자신이 남산골에서 나타나는 전통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전통임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한옥이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의 인식에서 구성된 상징적인 진정성을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들은 문화재라는 권위 있는 상징 하에 남산골의 한옥을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진짜 옛집이라고 인식하며 그렇게 소개하고 홍보한다. 문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각 행사를 맡은 담당자가 달라서 각자가 주장하는 전통의 진정성이 다르지만 전통혼례의 시연은 과거 한국에서 의례로서의 혼례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옛날의 모습과 방법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한복체험, 전통적 정신을 강요하는 예절교육, 전통예술의 원형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연출된 풍류마당 등에서도 남산골 한옥마을의 문화 프로그램이 가진 전통성을 강조된다. 이렇게 강조되는 전통의 진정성은 담당자들이 각 영역에서의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지식 배경과 경험을 부가하면서 요구하는 측면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전통 본질과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표현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하다고 여기는 전통을 드러낸다.

관광객의 측면으로 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관광지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포스트모던 대중 관광에서 많은 관광객은 관광지에서

자기가 얻은 감정과 오락성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지며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관광지에서 나타나는 관광요소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전통문화관광에서 관광대상이 되는 전통이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표현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 관광객은 한국 사회에 속하므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대중매체, 주변 환경 등을 통해서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기 전에도 한옥, 전통혼례 등 전통문화요소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남산골의 한옥을 접하면서 기존의 진정한 전통에 관한 인식을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한옥에 투사하고 기호와 상징을 찾는 것이다. 한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거나 한옥을 문화재로서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 남산골의 한옥은 옛날의 진짜 집들이 보존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남산골의 한옥을 복제품으로 간주하지만 그래도 옛날의 생활모습을 제대로 전시한다고 인정한다. 또한 운영관리자들이 기획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을 재현하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은 한국인의 인식 가운데 전통에 관한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진정성이 있는 체험으로 간주된다. 즉, 한국인 관광객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진정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현지 사회에 같이 속하는 자국민으로서 나름대로 한옥을 지키거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단순히 운영자가 보여주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의 재현에 참여하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관광지화된 남산골 한옥마을은 하나의 “모형문화”로서의 민속촌이고 본래의 자리에서 지속된 정주형

한옥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과 주민 간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없다. 관광객들이 이곳의 전통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전통의 재현에 참여하고 관광개발로 인해 한옥 등 전통문화에 파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보호하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관광행위는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전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요소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안내원 혹은 설명을 해주는 가이드가 중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이드의 설명은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도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본국의 비슷한 문화와 대비하거나 본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얻은 한국전통에 관한 정보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이해한다. 가이드의 설명과 자신이 가졌던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이 한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한국의 진정한 전통으로 인정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은 문화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한옥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익숙함과 친근감을 받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적인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진정성은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정수진, 2009: 12). 이 인식은 사회적 및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진정성은 사회에서 구성되는 관념, 기대, 이미지가 투사되어 형성되는 상징적인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대로 관광객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얻은 진정성의 인식이 관광운영자가 제공하는 "진정한 전통"과 일치하는 것은 국가가 남산골에 설정한 이미지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지체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이 한국이라는 국가 혹은 한국 사회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되 개인적인 인식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진정성은 실제 한국국가와 한국 사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상징적 진정성이다.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한편으로 관광운영자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는 전통한옥의 실체를 기초로 하여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진정한 한국전통을 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인식에서 전통 이미지와 일치하는 관광화된 "전통"을 단순히 관광 대상으로 활용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전통의 대표로 생각하고 수용한다. 진정한 전통으로 인식하고 나면 관광의 목적으로 전통을 재구성하거나 변화시켜도 이를 한국전통의 본질에 따라 활용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전통의 이러한 실체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한국적인 고유문화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진정한 한국 전통으로 여겨지게 된다. 나아가 그들은 단순히 전통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통의 유지와 지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정원

1999, “야쿠트샤머니즘과 으호아흐축제”, 비교문화연구 5, pp. 31-54

2002, “근대화와 동제의 변화-부천 먼마루 우물고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5(1), pp. 41-71

고동환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pp.1-48

고원규

2005, “문화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본 전통의 재구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숙인

1998,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관광의 생산: 아이즈북고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권4호, pp. 17-42

2003, “‘유적’에서 ‘생활문화’로: 현대 일본사회에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개”, 비교문화연구 제9집1호, pp. 3-27

김기호 양승우 외

2003, <서울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김영상

1996, <서울 육백년>, 제2권, 대학당

김용진

2003,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종족범주화와 문화재현에 관한 연구: 박물관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석

200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존재양식: 탈춤과 마당극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배

2003, “남촌 도시경관의 과거, 현대, 미래”, 김기호 외, <서울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남상민

1988, <한국 전통혼례>, 한국예절문화원

류정아

199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성의 의미: 남 프랑스 한 마을의 전통축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28: 79-99

문옥표

1996, <일본의 농촌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하회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2): 79~110

박경용

2004, “개화기 日帝의 서울 南村 侵奪過程 考察 : 명동 · 충무로 지역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0호, pp. 915-954

박혜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위도 띠뱃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소연

2009,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정을 통해 본 전통의 지속과 재구성:
안성시 산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영기·순남숙

1995 <결혼문화와 예절>, 서울: 학문사

서종대

1994, “한국 전통문화정책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일 연구: 60년대 이후
무형문화재 마당종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창섭·칼라 산토스

2012, “도시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에 관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pp. 33-56

야마시타 신지 엮음(황달기 옮김)

1997, 관광인류학의 이해, 일신사

윤현호

2013, “관광객과 주민의 시선 분석: 양동마을의 전통 및 진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재

2003, <한양 이야기>, 가람기획

이상억

1998, <서울의 韓屋, 남산골 한옥마을 도편수 이승엽가>, 한림

이진교

2000, “하회마을의 관광지화와 행위주체들의 관계양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민속마을의 관광지화와 시선의 재구성: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13, pp. 71-94

이진민

2006, “남산골 이축 한옥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재해

2001, "민속문화, 무엇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가", 실천민속학 새책 Vol.3, pp. 15-47

전경수

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정수진

2009, “관광자원으로서 민속의 진정성과 상품화”, 민속학연구 제24호, 7~26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교환

2010, “서울특별시 관할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경희궁,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정민

2011, “문화공간으로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흥희

2005, “민족문화유산의 의미부여 및 그 수용: 창덕궁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oorstin, D.

1964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Bruner, Edward M.

1991, "Transformation of Self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2), pp.238-250

1994, "Abraham Lincoln as Authentic Reproduction: A Critique of Postmodernism", <*American Anthropologist*>96(2), pp.397-419

Cohen, Erik.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pp. 371-386

1995, "Contemporary Tourism—Trends and Challenges: Sustainable Authenticity or Contrived Post-modernity?", <*Change in Tourism: People, Places, Processes*> Richard, B. and Douglas, P. eds., pp.12-29, London: Routledge

Craik, J.

1997, "The Culture of Tourism" In <*Touring Cultures: Transformation of Travel and Theory*> Rojek, C. & Urry, J. ed. New York: Routledge

Nash, D

1996,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ergamon

Culler, J

1981, "Semiotics of Tourism", *American Journal of Semiotics* 1(1), pp.127-140

Graburn, N

2009, 『Anthropology and the Age of Tourism』 (Chinese edition),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Hobsbawm, E. and T.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 Urry

2002, <The Tourist Gaze>, Sage Publications.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Reisinger, Y and C. J. Steiner

2006, "Reconceptualizing object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pp. 65-86

Salamone, F. A

1997, "Authenticity in tourism: The San Angel In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pp. 305-321

Stanton, M

1994,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A Multiethnic Model of
Seven Pacific Cultures", 『관광과 문화』, 일신사

Shils, E. A.

1981, <Tra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ith, Valene L.

1989,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Triling, L.

1972 <Sincerity and Authentici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Wang, Ning.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pp.349-370

2004,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Pergamon Press (이진형·최석호 옮김, 2004,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2. 정부 보고서 및 기타 자료

서울특별시

1991,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

1993, 남산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1998a, 남산골 한옥마을: 해체실측 및 이전복원공사보고서

1998b, 남산골 한옥마을 =The Village of traditional houses in the namsam valley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http://www.visitseoul.net>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maeul.seoul.go.kr>

희망 서울: <http://www.seoul.go.kr>

동아일보 1998년3월6일 "한옥의 참멋 보러오세요"

동아일보 1998년10월28일 "옛 사대부들 생활상 한눈에...남산골 한옥마을"

매일경제 2010년9월29일 "남산골 한옥마을 `박영효 가옥` 실제주인은..."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 and Its Acceptance in Tourism

Focusing on the Case of Namsangol Hanok Village

Liu Ch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monstrates the cognition of authenticity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tradition by the tourism developer as well as the process of an acceptance by tourists, and also the discussion of the effect from the authenticity to the representation and acceptance of tradition. Recent years, traditional culture tourism has springing up. Tradition, as a resource of tourism, has been exploited and utilized to reappear and reconstruct by means of touris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 that whether to reconstruct or remain the original tradition in the reproduction of tradition from an authenticity view.

Authenticity, as a cornel conception for the research of tourism,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This paper starts a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However, the authenticity is not the different ones by the acceptance of kinds of person as the view of constructivism, but the one influenced by the society and a common cognition to some degree. It is the 'objective' Symbolic Authenticity, which affects the both reappearance and acceptance of the tradition.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effort to re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ulture made by the executive of the traveling business of Namsangol Hanok Village. Namsangol Hanok Village, as a traditional cultural place with five Korean traditional houses which are the folklore material of Seoul city, is protected as cultural property on the one hand, and has the purpose to exhibit the ancient daily life. A traditional image is endowed to the Namsangol Hanok Village by Seoul city through an enhancement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history of the 'Namsangol' place. Based on it, a bunch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has been established by direct administrators to depict the traditionality through an exhibition of comprehensive Korean traditions. As administrators, they not only provide the exhibition of Korean tradition to the tourists, but also regard the traditional elements of Hanok Village as the real Korean traditions. Under an authoritative symbol of culture heritage, the cognition of Namsangol Hanok Village is to accept this Korean Houses as the original ancient ones, and emphasize its traditional authenticity by a series cultural programs such as a performance of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an experience of Korean clothes, an education of etiquette, and the traditional performances. Although

every director emphasizes tradition from different points, they are all to express the real traditions their considered through stressing the elements which can show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From a standpoint of tourists, it divides to the Korean visitors and foreign tourists. The Korean visitors, as domestic citizens and influenced by the Korean society, have generated an immanent cognition to Korean traditions. They just map their existed cognition of Korean traditions to the watched Korean traditional houses and search a kind of symbols of traditions in Namsangol Hanok Village. No matter thinking the real ancient houses or recognizing the replica of past daily life, Korean visitors all accept it as the representative of real Korean traditions and consider it is accordant with their known Korean traditions. Furthermore, with this cognition, Korean visitors not only just accept the traditions exhibition, but also attend the reappearance of the traditions through protecting their considered Korean traditional representative houses and participating into the cultural activities during their tourism.

Although foreign tourists, which most are Chinese,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tradition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our guide, they compare the Korean traditions with alike traditions in their own country, or get to understand the Namsangol Hanok Village by the information of Korean tradition from Korean government or media. Korean traditions and Chinese traditions have common parts. So Chinese visitors judge and accept Namsangol Hanok Village as an exhibition of real Korean tradition with Korean characteristic by comparing it with Chinese Traditional house or an acquaintance of

Korean ancient houses in Korean drama.

In conclusion, the cognition of authenticity is generated by adding personal experience into the basement—the social cognition. The image set by government, the 'real traditions' exhibited by operator and the authenticity obtained by visitors are coincident to some trend. It is the result of the symbolic authenticity achieved by the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Although the reconstruction and diversification can be caused by a target of tourism, if it can reflect people's cognition of tradition, which accept it as a characteristic exhibition of Korean inherent culture, so we can conclude that it can be regarded as the real Korean traditions.

Key Words: Tradition, Symbolic Authenticity, Constructive Authenticity, Representation, Acceptance, Namsangol Hanok Village, Tourism

Student Number: 2011-24009